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13호 【루계 제24526호】 주체103(2014)년 4월 23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가 성대히 진행된 충격적인 소식으로 온 나라가 끓고있다. 적들의 반공화국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첨예한 정세속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를 통하여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수령결사옹위의 항로만을 날으는 최고사령관의 비행대, 하늘의 결사대로 튼튼히 준비된 우리 항공군의 전투적위력이 힘있게 과시되였다.

지금 온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조국의 령공을 다 개방해놓고도 전군의 비행사들을 모두 평양에 불러 뜻깊은 회합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백두령장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뜨거운 은정에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우리 인민군대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억세게 싸워나갈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장구한 우리 혁명의 력사, 우리의 건군사는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고 생사를 함께 하는 동지, 전우가 되여 반제대결전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시대적모범을 창조해온 긍지높은 력사로 빛나고있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이룩하고 그 위력으로 백전백승을 떨쳐나가는것은 선군조선의 크나큰 자랑이다.

우리는 령도자의 두리에 사상과 뜻과 정으로 굳게 뭉친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더 높이 발휘하여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총진군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초석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천하지대본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오늘의 시대는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최대로 분출되는 영광스러운 시대이다.

단결로 시작되고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위업을 단결의 위력으로 끝까지 완성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오늘 혁명과 건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군민대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그 위력을 최대로 발양시켜나가는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대고조전투장들에서 군민협동작전으로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승리를 이룩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군대와 인민사이에 뜨거운 정과 사랑이 흐르고 서로 극진히 위해주는 미담들이 수없이 꽃펴나고있으며 우리 사회가 동지부대, 전우부대로 더욱 굳게 결속되고있다.

군민대단결은 백두산대국의 힘이고 존엄이며 강대성의 초석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연설에서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더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전을 박력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여기에는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산악같이 일떠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깃들어있으며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이 담겨져있다.

군민대단결은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지금 우리앞에는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의 대축전장과 잇닿아있는 올해를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이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오늘의 현실은 전체 군대와 인민이 새로운 진군속도,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비약하고 또 비약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속도는 곧 군대와 인민이 단결의 위력으로 창조하는 속도이다. 지난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질풍같이 내달리며 민족사에 특기할 기적과 전변을 안아왔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와 같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서고 과학, 교육, 체육, 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반적분야에서 놀라운 전진이 이룩되였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 선군조선의 비약의 기상이 높이 떨쳐질수 있은것은 우리의 군민대단결의 무궁무진한 위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총진군속도에 더 큰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 올해를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해, 선군조선의 새로운 진군속도가 창조되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군민대단결은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계속 높이 떨쳐나갈수 있게 하는 필승의 보검이다.

우리는 지금 자주적인민의 존엄과 사회주의의 운명을 걸고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공세를 과감히 물리치면서 력사의 생눈길을 헤쳐나가고있다. 오늘날 사회주의의 진로와 그 승리의 필연성은 우리 조선혁명가들의 투쟁에 달려있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은 대결과 전쟁연습소동에 매달리며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어떻게 하나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원쑤들의 책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심과 멸적의 의지를 천백배로 분출시키고있다. 천만군민이 사회주의수호를 위한 성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한마음한뜻으로 창조와 건설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민대단결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두려울것도 없고 타승하지 못할 강적도 없다.

군민대단결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떠받들고있는 밑뿌리이다. 적들이 가장 무서워하는것은 그 어떤 첨단무기가 아니라 바로 군대와 인민의 단합된 힘이다. 조국수호전에서나 사회주의건설에서나 군대와 인민이 한전호에서 어깨겯고 생사를 함께 해나가는 우리 조국이야말로 군민대단결로 백승떨치는 무적의 강국이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방대하고 난관도 있지만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며 선군조선의 힘찬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우리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에 맞게 군민대단결의 위력, 일심단결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수령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우리 군민대단결의 고귀한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우리의 군민대단결은 수령결사옹위의 력사적투쟁속에서 그 시원이 열리고 굳건히 다져진 위대한 단결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수령옹위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잇닿아있는 최대의 사명이고 삶과 투쟁의 절대적기준이다. 수령결사옹위에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이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지니고 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야 한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과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전위투사가 되여야 한다. 우리 당과 혁명대오를 경애하는 원수님을 사상으로 따르고 신념으로 받드는 위대한 사회정치적생명체, 가장 공고한 혼연일체로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요소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과업을 더없는 믿음으로, 영예로 여기고 제때에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원수님의 진정한 전우, 참다운 동지가 되여야 한다.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떨쳐나가는데서 인민군대가 주동이 되고 선구자가 되여야 한다.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는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게 하는데서뿐아니라 군민일치의 미풍을 높이 발양해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유서깊은 항일의 옛 전구에서 벌린 인민군지휘성원들의 항일유격대식군중정치사업은 량강도인민들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부글부글 끓게 하였다. 백두산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인민군대에 의하여 우리 혁명대오가 더욱 정예화되고 군민대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다져지고있다.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새기고 군민대단결을 강화하는데서 계속 선봉적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당의 사상과 령도를 맨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며 사상정신과 문화, 일본새와 생활기풍 등 모든 면에서 사회를 선도할수 있는 본보기들을 계속 창조해나가야 한다. 당에서 맡겨준 대상건설을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단숨에 해제껴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백두산혁명강군, 불가능을 모르는 결사대로서의 전투적위용을 남김없이 떨쳐나가야 한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드세차게, 맹렬하게 벌려 당이 준 과업을 어떤 자세와 립장으로 관철해야 하는가 하는 산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강성국가건설이 힘있게 벌어지는 들끓는 실천투쟁속에서 군대와 인민의 혈연적뉴대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오늘의 총진군에서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며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본때를 만천하에 과시하여야 한다.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주타격방향인 농업전선에서부터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려나가야 한다.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놓은 지난해의 그 앙양된 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한다. 선군조선의 위력한 투쟁방식인 군민협동작전으로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훌륭하게 꾸리고 도, 시, 군들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군민》이라는 부름과 더불어 빛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군민대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 위력을 높이 떨치기 위한 사상전을 박력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사상과 방침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발휘되는 인민군군인들의 숭고한 정신과 기풍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인민군대에서처럼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나타나는 결함뿐아니라 할수 있는것을 못한것은 무엇인가 하는것도 엄격히 총화하고 제때에 극복해나가며 뒤떨어진 단위들이 어떻게 하나 앞선 단위들을 따라잡도록 사상사업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야 한다. 맡겨진 경제과업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바람도 인민군대식으로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선전선동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맹렬히 벌려나가야 한다. 누구나 인민군대를 자기의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물심량면으로 적극 원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선군조선의 강성번영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 싸할린주정부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 싸할린주정부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우리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 싸할린주정부대표단 단장인 가흐 엘레나 니꼴라예브나 경제발전성 부상이 22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9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중국의 《료녕일보》, 이란의 파르스통신, 메흐르통신, 방글라데슈신문 《방글라데슈 투데이》, 민주꽁고신문 《라브니르》, 짐바브웨신문 《헤랄드》, 우루과이의 신문들인 《라 후벤뚜드》, 《라 레뿌블리까》와 쎄. 에끼스 36라지오 쎈떼나리오방송, 브라질신문 《아젠씨아 브라질》, 스위스조선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가 전하였다.

중국, 이란, 민주꽁고, 짐바브웨, 우루과이, 브라질의 신문, 통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본사기자

조선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업적토론회가 최근 로씨야 울라지보스또크, 벌가리아 쏘피아, 스웨리예 스톡홀름, 인도네시아 드위 미뜨라 뻐르까싸회사와 쏘피안기계기술회사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토론회들에 참가하였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 비서 게. 뻬. 꿀리꼬브는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동지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그이의 위업을 그대로 계승하신 김정일동지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커다란 기여를 하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그이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쳐왔다. 조선을 방문하여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벌가리아공산주의자당 위원장 민초 민체브,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아따나스 이와노브,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씨메온 이그나또브는 위대한 수령님을 20세기의 걸출한 정치가로 높이 칭송하면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앞에, 인류자주위업에 쌓아올린 공적으로 하여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비록 난관이 적지 않지만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은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울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스웨리예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오스카르 뮐레비는 탁월한 사상리론가,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격찬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뜻을 이어나가시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앞으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보다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인도네시아 드위 미뜨라 뻐르까싸회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끌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으며 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사상과 위업은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드팀없이 계승완성되고있다.

인도네시아 쏘피안기계기술회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세계가 공인하는 위인이시다.

조선인민군이 세계 그 어떤 강적과도 당당히 맞서 승리할수 있는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이끌고계신다.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진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벌가리아, 스웨리예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위대성선전에 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혁명에서는 사상사업이 언제나 첫째가는 중대사로 나서고 혁명의 개척기에 벌써 사상사업의 위대한 전통이 마련되였습니다.》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는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조직진행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도안의 사적단위들과 현지지도단위들, 접견자, 연고자들을 통한 선전선동사업을 짜고들어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거룩한 위인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령도업적단위들에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는데 선전선동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도안의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지,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참관을 의의깊게 조직하고 혁명사적부문 강사들이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위대성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리도록 하고있다. 평성시에서는 백송혁명사적지, 삼화혁명사적지를 비롯한 시안의 여러 사적지들에 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참관조직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각급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력사도록을 통한 위대성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일군들은 당조직들에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들을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하도록 하고있으며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을 가지고 당선전일군들과 당초급선전일군들속에서 문답식학습경연을 실정에 맞게 진행하고있다. 또한 위대성도서들에 대한 독보 및 연구발표모임을 진행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내용으로 선전활동을 집중적으로 벌리고있다. 특히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심어주기 위한 강습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도안에 깃들어있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잘 알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평성시, 덕천시, 순천시, 증산군,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도안의 시, 군들 그리고 많은 단위들에서는 도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숭고한 인민사랑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기 위해 접견자, 연고자들을 통한 순회강연을 의의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도출판물관리국에서는 시, 군의 출판물보급원들을 해당 단위들에 내보내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도서들과 선군혁명사상해설도서들을 가지고 도서해설선전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고있다.

도작가동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작가들이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전하는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조직들에서 뜻깊은 태양절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도 박력있게 벌리였다.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농업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기동예술선동대활동, 예술소조활동, 집중강연선전, 혁명사적부문 강사들의 이동강의활동, 이동식포전방송기재를 통한 선동사업을 위대성선전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고있다.

또한 도안의 석탄, 전력공업부문에서는 1.4분기계획수행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교훈에 기초하여 일군들이 전투장들에 나가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과 경제선동을 기동성있게 진행하고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병기창과 같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의 참뜻을 심장깊이 새긴 이곳 기업소의 당위원회일군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을 발동하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더욱 다그쳐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선전선동공세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도당위원회에서는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는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에 방송선전차, 기동예술선동대, 직관원들을 파견하여 경제선동을 집중적으로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마식령스키장에 많은 나무를 심었다

강원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은정속에 대중체육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마식령스키장 스키주로들의 주변에 방풍림조성을 위한 나무심기를 진행하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무심기가 시작된지 불과 며칠 안되는 짧은 기간에 잣나무와 이깔나무를 비롯하여 1만 5000여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로 현장지휘부를 조직하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뜨거운 향토애와 열렬한 애국심을 안고 나무심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현장지휘부일군들은 산림부문 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나무심기를 위한 경제조직사업과 기술지도를 잘해나갔다. 마식령스키장으로 달려나온 도급기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첫날부터 나무심기에서 실적을 올리였다.

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과 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을 비롯한 여러 도급기관들이 짧은 기간에 맡은 구간에 대한 나무심기를 제일먼저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원산시와 안변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 달려나온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나무심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나무모생산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마식령스키장에 보내줄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 나무심기를 제기일에 끝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파기자 신천일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줄 발전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조 선 의 첫 새 벽 문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생애를 더듬을 때면 자연히 불철주야라는 말을 외우게 된다.

불철주야!

우리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는 그렇게 한평생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시고 사업하시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였다.

오늘은 이 땅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철주야의 력사가 수놓아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여 우리 식, 위대한 장군님식으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처럼 현지지도로 낮과 밤을 보내시며 때로는 집무실에서, 때로는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새날을 맞으시면서 우리 원수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분투하고계신다.

하여 어느날 일군들은 잠시의 휴식도 없이 사업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너무 무리하시지 말아달라고, 제시간에 주무시고 식사도 제때에 하셔달라고 온 나라 인민들의 심정을 담아 간절하게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맙다고, 자신께서는 일없다고 하시면서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였으며 매일 새벽 3시, 4시까지 집무를 보시고 이 나라의 첫새벽을 남먼저 맞으시였다. …

그이의 음성은 저으기 갈리시였고 안광에는 추억의 빛이 짙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께서 맡기고가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자신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일하여도 성차지 않고 하루가 24시간밖에 안되는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있다고,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고 하루빨리 이 땅우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워 우리 인민을 부러운것이 없이 잘살게 하자는것이 자신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결연한 어조로 나는 한생 어버이장군님의 혁명방식, 생활방식을 따를것이며 이제부터는 장군님을 대신하여 내가 조선의 첫 새벽문을 열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실 철석의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뜨겁게 하신 그날의 말씀,

장군님을 대신하여 자신께서 조선의 첫 새벽문을 열것이라고 하신 그 력사적인 말씀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새겨주며 이 땅의 날과 달들에 끝없이 메아리치고있다.

조선의 첫 새벽문!

날마다 내 조국의 첫 새벽문을 여시며 위대한 헌신의 한생을 력사에 수놓으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늘 밤을 새우며 일하시고 집무실에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새날을 맞으시는 수령님께 일군들이 잠시라도 휴식하시기를 말씀드리면 내가 순간이나마 편안히 지내면 나라가 부흥하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고 하시며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하는데 항상 시간이 모자라는것이 제일 안타깝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

한 일군이 어버이수령님께서 하루에 두세시간도 주무시지 못하고 일하시는데 그렇게 자신을 혹사하시면 어떻게 하는가고 눈물을 머금었을 때에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던가.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젠 버릇이 되여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라의 새벽문도 내가 열어야 하고 나라의 저녁문도 내가 닫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흥하고 우리 인민이 잘살게 됩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한평생 조선의 첫 새벽문을 여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헌신의 길을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이어가시며 어버이장군님께서도 날마다 조선의 첫 새벽문을 여시였다.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이고 보람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일요일에도 명절에도, 자신의 생신날에도 휴식을 모르시며 집무를 보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날마다 이 땅의 첫새벽을 맞으시고 내 조국의 하루하루를 비약과 전변, 강성부흥에로 이끄신 잊지 못할 력사의 갈피속에는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2월의 하루도 비껴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전날인 생신날에도 여러 부문의 일군들을 만나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잠시도 쉬지 않으신 몸으로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때는 삼라만상이 잠든 이른새벽,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먼길을 가시는 도중에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며칠전에도 인민생활문제를 두고 심려깊은 교시를 주시였다고 하시면서 언제인가 전화로 한 닭공장건설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신 수령님께서 전화를 끊으시자 곧 현지로 나가신 이야기를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 대안닭공장건설장을 찾아가신것이 언제인지 아는가, 바로 새벽이였다, 수령님의 이런 새벽길은 동해의 한 포구에도, 서해지구의 한 남새포전에도 아니 온 나라의 거리와 마을들에로 끝없이 뻗어나갔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걸으신 이 새벽길을 누가 이어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걷고걸으시였고 우리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걸으신 그 무수한 새벽길들에서 내 조국의 부강번영이 설계되고 인민들이 맞고맞은 행복의 새날들이 밝아왔으며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이 솟아오르지 않았던가.

참으로 조선의 첫 새벽문을 여시는것은 백두산위인들의 변함없는 혁명일과였으며 년대와 세기를 이어온 그 일과속에서 우리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왔다.

우리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맞고맞으시던 이 땅의 첫새벽들을 지금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맞고계신다.

인민의 리상과 꿈이 담긴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시며, 집집에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시며, 초소의 병사들을 따뜻이 돌봐주시며 날마다 이 나라의 첫 새벽문을 여시고 로고의 달을, 해를 이어가고계신다.

그 나날에는 섬방어대의 병사들을 찾아 파도를 헤치며 이어가신 이른새벽의 날바다길도 있다.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위성발사장을 향해 차를 달리신 새벽의 눈길도 어리여있다. 과학자들에게 안겨주실 새 살림집거리며 휴양소를 그려보시면서 집무실을 나서신 잊지 못할 정월의 새벽도 깃들어있다.

웃음소리높은 공원과 유원지들에도, 새집들이기쁨넘치는 마을들과 해빛밝은 교정들에도, 원아들의 밥상에 아침저녁으로 오르는 물고기반찬 하나에까지도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우리 원수님께서 열고여시는 첫 새벽문이 비껴있는것이다.

조선의 첫 새벽문!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 여시였고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날마다 여시는 내 조국의 첫 새벽문,

온 세상에 이렇게 소리쳐 말하고 싶다.

우리 원수님께서 로고를 바치시며 날마다 여시는 첫 새벽문으로 인민의 만복이 흘러든다고,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려명이 휘황하게 비쳐든다고!

본사기자 박 철

혁명일화

명예총장의 20분간 강의

지난해 11월 평양건축종합대학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명예총장이 되겠다고 하신 사실은 온 나라 인민들과 교육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바로 그날에 있은 일이다.

대학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미술실기실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거기에서는 학생들이 한창 그림을 그리고있었다.

미래의 전도유망한 건축가들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모습을 사랑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인물속사하는데 몇분 걸리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학생이 5분간이면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러면 한 10분정도 기다릴테니 여기 온 일군들을 선택해서 인물속사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러시고는 동행한 일군들가운데서 한 일군을 몸소 선정해주시였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여서 일군들도 대학 교원들도 깜짝 놀랐다.

(일분일초도 귀중한 현지지도의 시간을 학생들의 미술실기때문에 내시다니?!)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치도 수업종소리와 함께 교실에 들어선 스승의 다정하고 친근한 눈빛으로 학생들을 바라보시며 환히 웃고계시였다.

모두의 눈길이 화판을 앞에 놓고 앉은 3명의 학생에게 쏠리고 미술실기실에는 연필소리만이 조용히 울리였다.

아직 미숙한 학생들의 그림솜씨를 보아주시려 귀중한 시간을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앞에서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해하던 대학의 일군들은 그이께 학생들의 건축형성설계작품집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흡한 점이 많은 건축형성설계작품집을 한장한장 유심히 보아주시면서 잘 그렸다고 과분한 치하를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건축가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그러자면 공간표상능력과 형태, 비례, 색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어떤 색으로 마감하는가 하는데 따라 건축물이 완전히 달라져보인다고 하시며 어느 한 건설대상의 실례까지 들어 차근차근 설명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새기는 교원들의 심장은 세차게 높뛰였다. 한생을 교단에 바쳐왔다고 자부하였지만 이렇듯 짧은 시간동안에 건축학의 원리로부터 시작하여 그 특징과 기초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처럼 간단명료하게 누구나 쉽게 리해할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앞에 절로 머리가 숙어졌다.

어느덧 10분간이 흘렀다. 그이께서는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는 곳으로 다가가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직 채 완성되지 못한 세 학생의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서 속사를 하는것을 보니 방법이 다 다르다고 이르시였다. 머리를 먼저 그리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몸을 먼저 그리는 학생도 있다고, 앞에 앉은 두 학생이 속사한 그림들을 보니 하나는 비례가 비슷하고 다른 하나는 자세가 비슷하다고 우점과 결함에 대하여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다.

뒤에 앉은 학생은 속사하는 대상의 특징을 비슷이 뽑아내였다. 이 학생이 정해진 시간에 속사를 제일 잘하였다. 인물속사는 그 사람의 고유한 특징이 살아나게 하여야 한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특징을 하나만 정확히 도출해내여 그것만 잘 그려도 형태가 잡힌다. …

소묘대상이 된 일군과 학생들이 속사한 그림을 번갈아보며 사람들은 감동과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축형성설계작품집을 보아주시며 건축가가 갖추어야 할 창조적인 안목과 공간표상능력, 감각과 미감에 대하여 참으로 명백하고 통속적으로 가르쳐주실 때에도 놀랐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몇장의 그림을 보시고도 대상의 본질적인 특징만을 집약적으로 빠른 시간에 그려내야 하는 미술실기실천의 요구와 방도에 대하여서까지 명쾌하게 밝혀주시는것이였다.

준비된 강의안도 없는 강의였다. 그러나 단 20분간에 학생들을 매혹시키고 교원들을 경탄시킨 강의였다.

사회의 발전면모와 현대의 모든 지성, 창조적사색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건축의 세계가 얼마나 심오하며 그 첨단에 올라서자면 어떤 높은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더욱 잘 알게 된 대학일군들과 교원들이였다. 내 나라를 하루빨리 세상이 부러워하는 문명강국으로 빛내이시기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쳐가고계시는 열렬한 사랑과 헌신의 웅심깊은 세계를 그 짧은 20분간 강의가 다시금 똑똑히 깨닫게 해주었다.

대학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베풀어주신 하늘같은 은정을 되새겨보는 일군들과 교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자신께서 명예총장이 되겠다고 하시던 말씀의 깊은 뜻이 가슴벅차게 안겨들었다.

무한한 격정에 넘쳐있는 교원들의 귀전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믿음의 말씀이 메아리쳐오고있었다.

《학생들에게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도가 달려있고 이 학생들의 손에 의하여 사회주의문명국의 설계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평양건축종합대학 학생들은 앞으로 사회주의문명국의 설계도를 자기들이 그려야 한다는 자각과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겠다는 야심만만한 포부와 꿈을 안고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신 차는 어느덧 대학정문을 벗어나고 시야에서 멀어지고있었다. 하지만 그이를 마음속으로 따라서는 모두의 심장마다에서는 이런 웨침이 터져나오고있었다.

(위대한 건축의 영재를 우리 대학의 명예총장으로 모시였으니 주체건축의 래일은 얼마나 휘황찬란할것인가!)

본사기자 백 영 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알좌자이르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아브델아지즈 부떼플리까각하

나는 당신이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으로 또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민족적단합을 공고히 하고 경제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고있는 력사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4월 21일 평 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그리스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디오니씨오스 쑤르바노스 주조그리스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궁석웅 외무성 부상과 그리스공화국대사관 성원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박 봉 주 총 리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줄데 대하여 강조

【평양 4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박봉주내각총리는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기업소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장들에 한g의 세멘트라도 더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하여 일별, 월별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기세높이 내달리고있다.

총리는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증산투쟁에 떨쳐나선 로동계급의 투쟁성과를 적극 고무해주었다.

이어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우리 당의 사회주의문명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각지 건설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기 위해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련관단위들에서 생산에 필요한 전기와 원료를 원만히 보장해줄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한편 총리는 인민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르는 문수물놀이장도 돌아보았다.

총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훌륭히 일떠서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고있는 문수물놀이장의 관리운영과 리용정형을 료해하고 해당한 조직사업을 하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제일생명

전당, 전군, 전민이 뜻깊은 태양절을 민족사적인 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한 긍지드높이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자》**를 발표하신 40돐을 맞이하였다.

주체63(1974)년 4월 20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주체형의 혁명가가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에 대하여 뚜렷이 밝힌 강령적문헌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게 하는 혁명의 교과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을 지니고 우리 당에 영원히 충성다하여야 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야 합니다.》

혁명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한 사람만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조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수 있으며 수령이 안겨준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갈수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높이이자 혁명가의 삶의 높이, 인생의 높이이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40년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온 자랑찬 년대기로 빛나고있다. 이 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전진시켜왔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는 길에 보람차고 행복한 삶이 있고 휘황한 미래가 있으며 세상이 열백번 변해도 대원수님들께서 가리키시는 길로만 나아가려는것이 우리 인민의 불변의 신념이였다. 세상사람들을 놀래운 로동당시대의 알대 전성기도, 고난의 행군, 강행군에서의 력사적인 승리도,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된 끊임없는 대혁신, 대비약들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충정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오늘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실성은 더없이 순결하고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고있다. 그 어디서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대하가 흐르고 천출위인을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나고있다. 천만군민을 한품에 안아 선군시대의 혁명가들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믿음과 사랑이 있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대를 이어 변함없이 간직하게 하는 근본원천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일시적인 흥분이나 강요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것이 아니다.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수령의 위대성과 업적을 심장깊이 새기고 수령에게 사상정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완전히 매혹될 때라야 가장 진실하고 공고한 충실성을 간직하게 된다.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여야 혁명적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할수 있다는것이 로작에 밝혀진 중요한 사상이다.

우리 인민이 신념과 의리로 지닌 충실성은 우리 수령제일주의에 바탕을 두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지니신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은 우리 조국과 혁명, 인민이 백전백승의 력사만을 아로새겨올수 있게 한 근본비결이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시여 자주시대의 영원한 지도사상을 마련해주시였고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으며 따사로운 사랑으로 온 사회를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승리떨치는 백두산대국,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불패의 일심단결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물려주신 귀중한 혁명유산이다.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라는 값높은 부름과 더불어 우리 조국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만대에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오늘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실성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의리로 변함없이 이어지고 날이 갈수록 더욱 승화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사상과 령도, 풍모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또 한분의 희세의 위인이시다. 특출한 령도실력으로 우리 조국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은 하늘에 닿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평생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갈것이다.

우리 혁명의 년대기마다에 높이 발휘된 충실성의 전통은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실성이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되게 하는 근본바탕이다.

혁명선렬들에 의하여 마련된 충실성의 빛나는 전통은 천만군민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키우는 생명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간직하도록 하는데서 충실성의 산모범을 따라배우게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 혁명력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선렬들의 고결한 삶은 우리들에게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란 어떤 사람이며 혁명가의 한생은 어떻게 빛나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아래서 혁명의 진리를 깨닫고 투쟁의 길에 나선 항일혁명투사들은 수령님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을 창조하였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진심으로 받들고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였으며 당의 령도밑에 혁명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였다.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이런 수많은 혁명전사들이 있어 세계적인 정치풍파속에서도 수령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은 확고부동하였으며 우리 혁명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의지대로 곧바로 전진해올수 있었다.

오늘 혁명선렬들이 지녔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굳건히 자리잡고있다. 천만군민이 높이 부르는 노래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에는 백두밀림에 차넘쳤던 항일의 7련대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이 나래치고있으며 준엄한 혁명의 년대기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른 전세대혁명가들의 충정의 세계를 대를 이어 빛내여나갈 드팀없는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지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조국땅에는 백두의 혁명정신이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과 모란봉악단의 량강도순회공연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백두령장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주체혁명의 종국적승리를 기어이 이룩하려는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주고있다.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충실성의 빛나는 전통이 있고 그것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천만군민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영원히 백두산대국으로 위용떨칠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의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거창한 혁명실천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진정으로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려면 당과 수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제때에 수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생전의 뜻이고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강성국가건설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곧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오늘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이룩되고있는 눈부신 전변들에는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한목숨 서슴없이 내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투쟁정신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지금 조국땅 그 어디에나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충정의 구호가 새겨져있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당이 준 과업을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최상의 높이에서 완전무결하게 해내야 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로 되고있다. 강성국가건설의 자랑찬 승리로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위하려는 천만군민의 비상한 각오와 혁명적열정으로 하여 우리 조국은 세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비약하고있으며 날에날마다 그 모습이 새롭게 변모되여가고있다. 천만군민의 앙양된 열의는 과학기술대진군의 힘찬 발걸음으로 이어지고있으며 농업과 수산을 비롯한 경제분야에서의 혁신의 불길로 타오르고있다.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기세드높이 강성부흥의 령마루에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약동하는 숨결은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의 거세찬 분출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김 철 학

《농업부문 분조장들에 대한 우리 당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큽니다.》 김정은

여기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다

연백벌의 농촌들에서

연백벌의 농촌들에서 총공격전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고있다.

—올해농사를 잘 지어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하자.

이런 열의를 안고 연안, 배천, 청단군안의 농업근로자들이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연백벌안의 농촌들에서 강냉이영양단지씨넣기를 끝낸데 이어 2계단 벼모판씨뿌리기,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배천군이 두벌농사면적과 모판자리를 제외하고 논갈이를 끝냈으며 그뒤를 청단, 연안군이 바싹 따르고있다.

이 성과속에는 농사를 잘 짓는것을 조국의 운명, 혁명의 승패와 관련되는 정치적인 문제로 보고 영농전투의 하루하루를 혁신으로 수놓아가고있는 분조장들의 노력이 크게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분조장들은 모든 농사일을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며 분조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국가의 전투명령으로 여기고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배천군에서는 올해 영농전투에서 분조장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었다. 강습을 조직한 군일군들은 분조장들을 당의 농업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누구보다도 주체농법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해설선전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일군들이 분조들을 맡고 내려가 도와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군안의 모든 분조들이 논갈이와 강냉이영양단지씨넣기를 끝낸데 이어 당면한 영농전투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으로 세차게 끓고있다.

분조장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달리고있다. 그들은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가는데서 농사를 잘 짓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깊이 자각하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추정, 조옥희, 강호협동농장의 분조들이 밭갈이를 남먼저 끝내고 벼모판씨뿌리기를 적극 내밀고있으며 수복협동농장의 분조들이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를 끝냈다. 또한 홍현협동농장의 분조들이 벼모를 과학기술적으로 기르고있다.

추정협동농장의 분조장들은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적극적인 옹호자, 선전자, 관철자가 되기 위해 있는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그들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일을 해나가기 위해 애써 노력한 결과 분조들에서는 밭갈이와 강냉이영양단지씨넣기를 짧은 기간에 끝냈으며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벼모판씨뿌리기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제11작업반 2분조에서 벼모판씨뿌리기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하고있다.

홍현협동농장의 분조장들도 쌀이 많아야 미제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셔버릴수 있다고 하면서 벼모판씨뿌리기에서 날마다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제8작업반 2분조에서는 앞선 모기르기방법을 받아들인데 맞게 온도와 습도보장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하고있다.

쌀만 있으면 그 어떤 강적이 덤벼들어도 무서울것이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논갈이와 모기르기, 벼모판씨뿌리기,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에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농업근로자들속에는 청단군의 분조장들도 있다. 그들은 농업전선은 반미대결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원쑤격멸의 심정으로 논갈이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농장들에서는 분조장들의 드높은 열의에 맞게 사회주의경쟁을 실속있게 조직하고있다. 분조장들은 우승의 영예를 지니기 위해 높은 경쟁열의를 가지고 앞장에서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화산협동농장의 분조장들은 당의 농업정책이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분조관리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발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이 전적으로 자기들에게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있다.

제13작업반 1분조원들은 분조장의 모범을 따라 농사를 잘 짓는것을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가기 위한 사상적인 문제로 보고 매일 맡겨진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과제를 무조건 수행하고있다. 구월협동농장의 분조장들도 농촌의 선구자, 기수가 되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이악하게 투쟁하고있다. 제7작업반 1분조에서는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계획을 정확히 주고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함으로써 실적을 높이고있다.

연안군에서는 분조장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경험발표회도 조직하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군급기관들이 분조들을 맡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그리하여 군안의 분조장들의 열의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있다.

해월협동농장의 분조장들은 사회주의농촌진지를 강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의거하고있는 농촌핵심이라는 긍지를 안고 앞장에서 분조원들을 이끌고있다. 제5작업반 2분조에서는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밭갈이를 농장적으로 남먼저 끝내고 논갈이에서도 높은 실적을 내고있다.

와룡협동농장의 전투장에서도 혁신의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제2작업반 3분조에서는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창조적열의를 높이는데 힘을 넣고있다. 결과 벼모판씨뿌리기,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에서 다른 분조들보다 앞서나가고있다.

풍천협동농장의 분조장들은 올해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갈수 있다는 투철한 신념을 안고 모기르기에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바치고있다. 제5작업반 2분조에서는 벼모판씨뿌리기를 힘있게 내미는것과 함께 벼모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있다.

사생결단의 혁명적각오와 의지를 안고 총공격전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는 연백벌의 분조장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전투장들에서는 날에날마다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윤용호

앞선 영농기술에 민감하자

◇봄철영농전투가 한창인 사회주의협동벌에서 과학농사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 무한히 고무된 분조장들은 당면한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잘하여 올해 알곡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우리 분조장은 현대농업과학기술에 정통한 실력가이다.》,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이런 분조장과 함께라면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다.》…

분조장들에 대한 이런 목소리들이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울려나오고있다.

그렇다.

이곳 분조장들처럼 현대농업과학기술에 정통한 실력가가 될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분조앞에 나선 농업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다.

◇새것에 민감하여야 진짜배기실농군이 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낡은 경험을 고집하면서 과학기술을 홀시하는 경향을 없애고 과학연구성과들을 농업생산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에서는 분조장들이 모든 농사일에 정통하고 현대농업과학기술을 소유한 새 세기의 진짜배기실농군이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 농촌에는 당의 뜻을 받들어 백가지 농사일을 기술적요구대로 해나가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분조장들이 수없이 많다. 염주군 신정협동농장 방명호동무를 비롯한 많은 분조장들의 경험은 분조장들이 농사일에서 모르는것, 막히는것이 없고 모든 영농공정을 과학적리치를 따져가며 해나갈 때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대의 농사는 과학농사이며 모든 영농공정이 기술공정인것만큼 분조장들이 현대농업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성이 높아도 알곡생산에서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귀중한 이 땅에 땀과 함께 지혜도 바칠줄 아는 분조장이 바로 시대가 요구하는 진짜배기실농군이다.

◇농업부문 분조장들은 선진영농기술과 방법을 환히 꿰들고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

분조장들은 꾸준히 학습하여 현대농업과학기술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야 한다. 어제날 실무가 높다고 일러오던 분조장이라 해도 탕개를 늦추면 잠간사이에 시대에 뒤떨어질수 있다. 분조장들은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늘 머리를 쓰고 궁리를 많이 하며 선진영농기술과 방법, 좋은 농사경험들을 배워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농업과학자, 기술자들이 개발한 지적제품들을 분조농사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자원으로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비료, 첨가제들과 농약, 농기계, 토지개량제 등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현실에서 은을 내고있는 농업생산경험들도 대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단지모에 의한 논벼소식재배경험, 온실을 리용한 벼모기르기에서 얻은 경험, 지하해충피해를 막기 위한 강냉이종자피복방법, 강냉이이삭목찌르기에 의하여 소출을 높인 경험, 과학적인 비료시비방법 등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선진영농기술과 방법들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

농업부문 분조장들은 협동벌에 애국의 열정과 함께 창조적지혜를 바쳐 풍요한 결실을 마련함으로써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수필 제1선참호의 화선분대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분조장들은 올해에 첫 대회로 농업부문분조장대회를 마련한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분조장의 임무를 책임적으로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봄빛넘치는 열두삼천리벌을 그려보는 나의 마음은 흥그러워졌다. 하건만 정작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지난해들과는 달랐다. 방송선전차에서 힘있게 울려나오는 전시가요, 논밭을 갈아엎는 뜨락또르들의 세찬 동음과 부림소들의 방울소리, 번개같이 일자리가 푹푹 나고있는 씨불임전투장, 격동된 농장원들의 상기된 얼굴들… 치렬한 격전장을 방불케 하는 벌의 광경이 나의 가슴을 쿵— 울려주었다.

불현듯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에서 토론한 숙천군 약전농장 분조장 전상복동무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숙한 나이와 체소한 몸집의 녀성이여서 제8작업반 3분조를 앞선 분조로 만들고도 제일 뒤떨어진 2분조를 맡아 경쟁에서 우승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그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스스럼없이 말하였다.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화선식으로 일했을뿐입니다.》

화선식, 외워볼수록 충격이 컸다.

화선식이란 말은 화선에서 하는것과 같은 방식이란 뜻이다. 그러니 그는 자기 위치를 제1선참호를 지켜선 화선분대장과 꼭같이 놓고 사업도 생활도 전화의 그날처럼 하고있다는 말이였다.

순간 그 분조장의 모습이 포연내배인 분대장의 군복차림새로 비껴들며 생각이 깊어졌다. 가렬처절했던 1950년대 전화의 나날에 당과 조국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운 유명무명의 전사들은 그 얼마였던가. 그 대오의 앞장에는 언제나 분대장들이 서있었다.

당시 《로동신문》에 소개된 기사 《근위 강건 제2보사 장병들의 1211고지, 1052고지의 영웅적방어전》에는 이렇게 씌여져있다.

… 1211고지와 1052고지는 벌써 고지가 아니였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철의 요새였으며 적에게 있어서는 무리죽음터였다. … 분대장 오순선동무는 자기에게 탄약이 없어졌을 때 돌을 굴렸고 또 그것마저 떨어지자 적을 맞받아나아가 적에게서 경기를 빼앗고 그것으로 끝끝내 자기 방어구역을 지켰다. …

우리 당이 높이 내세워준 리수복, 신기철영웅도 분대장들이였다. 분대장들이 대오의 맨 앞장에서 피끓는 가슴으로 적화점을 막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고지를 사수하였기에 전사들모두가 그들처럼 영웅적위훈을 세울수 있었다. 이런 분대장들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미제의 항복서를 받아내고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무적의 강군으로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한것이 아니랴.

그 영웅적위훈의 원동력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애국심이였다. 땅의 주인, 공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은 곧 우리 조국이라는 철리를 신념으로 새겨안은 그들이였기에 애국심은 쇠물처럼 뜨거웠다.

사랑은 헌신이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희생적인 헌신으로 이어졌기에 그들은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칠수 있었다. 그러니 우리의 모범분조장들은 제1선참호에 선 화선분대장의 정신을 닮은것이 아니랴.

그렇다. 분조장이 되였다고 저절로 애국자가 되는것은 아니다. 사상도 실천도 전화의 그날 제1선참호의 화선분대장들과 꼭같은 분조장이여야 선군시대의 애국자라고 자부할수 있거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곧 조국이시고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보석같은 조국애를 알곡증산을 위해 깡그리 바쳐가는 그런 애국자가 바로 시대가 요구하는 분조장이리라.

나의 눈앞에는 취재길에서 만났던 실농군들, 농사를 잘 짓는것이 조국의 운명, 혁명의 승패와 관련되는 중요한 정치적문제라는것을 심장에 새겨안고 뛰고 또 뛰고있는 미더운 분조장들의 모습이 우렷이 떠올랐다. 이런 애국자대오가 수풀처럼 무성한 사회주의대지에 넘쳐날 쌀풍년, 만풍년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오는것만 같아 나의 마음은 벌써 가을철에 가있었다.

본사기자 태명호

농촌의 선구자, 기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분조장들은 분조장의 임무를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하여 농업생산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농촌의 선구자, 기수가 되여야 합니다.》

능숙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제1작업반 1분조장은 분조농사와 분조관리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는 분조의 참된 주인, 능숙한 지휘관이 되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있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는데서 분조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늘 앞장에서 분조원들을 이끌고있다.

각지 농촌의 분조장들이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 기수가 될 불타는 열의를 안고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지휘관

로력조직과 작업조직을 면밀하게 짜고드는것과 함께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고있다.

올해농사를 잘 짓는데서 밑거름이 될 각오를 가지고 밤잠도 적게 자면서 성실한 땀을 바치고있다. 더우기 새로운 벼모기르기방법을 많은 면적에 받아들인것만큼 그 어느때보다 머리를 더 많이 쓰고 분조원들의 집체적지혜와 창발성을 발동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그리하여 씨뿌리기가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되여 벼모가 튼튼히 자라고있다.

진짜배기실농군

문덕군 룡중협동농장 제1작업반 3분조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알곡증산으로 보답하기 위해 현대농업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새 세기 진짜배기실농군으로 준비해가고있다.

올해에도 그는 자신부터 과학기술로 무장할뿐아니라 분조원들 모두가 기술적요구대로 농사를 짓도록 하고있다. 그는 튼튼한 모를 길러내는데 알곡증수의 중요한 열쇠가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늘 머리를 쓰고있다. 지난 시기 농사경험도 분석해보고 모판관리공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힘을 넣고있다. 또한 분조원들이 모기르기에서 나서는 기술적내용들을 잘 알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착실한

신천군 새길협동농장 제2작업반 1분조장은 분조재산을 알뜰히 거두고 애호관리하는 착실한 살림군이다. 그는 늘 분조재산을 제 집재산처럼 여기고 관리에 힘을 넣고있다. 그리하여 분조에서는 낫, 호미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구들을 넉넉히 마련해놓고 농사일에서 언제나 다른 분조보다 앞서나가고있다. 지난 시기 그는 분조의 호미 한가락, 낫 한자루도 제 집 숟가락 다루듯 하고 부림소관리에도 각별한 힘을 넣었다. 분조원들도 서로 마음을 합쳐 부림소, 소농기구들을 자기 재산, 자기 살붙이처럼 귀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였다. 결과 소농기구를 보충하는데 들던 품이 줄어들었고 대신 분조원들의 수입은 늘어났다.

살림군

올해에도 그는 분조재산은 나의 재산이라는 관점밑에 이 사업에 힘을 넣어 분조가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성과를 거두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서로의 지혜를 합쳐 벼모판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 재령군 봉천협동농장에서 — 본사기자 찍음

첫새벽의 주인

구장군 사오협동농장에서

구장군 사오협동농장에서 앞그루감자심기가 시작된 날 새벽이였다. 밤늦게까지 작업조직을 한 관리위원장 백동식동무는 포전길에 나섰다.

거름운반실태며 밭갈이상태를 알아보면서 걷던 그는 제2작업반 2분조의 밭머리에서 그만 걸음을 멈추었다. 어디선가 소방울소리가 들려왔던것이였다.

(이른새벽에 누가 먼저?!)

다가가보니 누렁소를 몰아가며 밭갈이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인기척도 못 느끼며 밭갈이를 하고있는 첫새벽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분조장 박경철동무였다.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날부터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자고 무슨 일에서나 남먼저 어깨를 들이대군 한 그였다. 그때부터 그는 분조농사의 운명이 자신의 어깨우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남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달리군 하였다.

이날 이른새벽부터 해저무는 저녁까지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걸싸게 밭갈이를 하는 분조장을 보며 분조원들도 기세를 올리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앞그루감자심기 첫 전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첫새벽의 주인공이 되군 하는 박경철동무, 이런 분조장이 앞에 있어 분조는 언제나 앞자리에 있는것 아닌가.

본사기자

맏형, 맏누이가 되여

사리원시 만금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분조장들은 분조원들을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분조의 맏형, 맏누이가 되여야 합니다.》

모든 분조장들이 분조의 맏형, 맏누이가 되여 분조원들을 잘 이끌면 분조농사가 잘되며 나아가서 농장일이 잘되기마련이다.

사리원시 만금협동농장의 현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농산제1작업반 1분조에서는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높이 세운데 맞게 여러가지 유기질비료와 종자준비, 영농자재준비 등을 빈틈없이 하였다가 씨뿌리기를 제철에 하여 모를 실하게 키우고있다. 이 성과는 분조의 맏형이 되여 분조원들을 당의 농업정책관철에로 이끈 분조장의 숨은 노력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어느날 저녁 하루작업을 총화하던 분조장은 변동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각한 자책감이 앞서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오후작업이 시작될 때 일이 바쁘다나니 그의 몸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것을 미처 몰랐기때문이였다. 그날 분조장은 밤늦게까지 여러가지 약재를 마련해가지고 변동무의 집을 찾아갔다.

이때뿐이 아니였다. 얼마전에도 한 농장원의 어린아이가 앓는다는것을 알게 된 그는 주저없이 밤길을 걸었다.

분조원들을 친혈육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분조장의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 날이 갈수록 분조안에 집단주의미풍이 더 높이 발휘되고있다.

농산제4작업반 3분조의 모든 농사일이 잘되는 밑바탕에는 분조원들을 위하는 분조장의 뜨거운 인정미가 깔려있다.

어느날 저녁 리동무는 살림집보수에 필요되는 여러가지 자재를 들고 들어서는 분조장을 맞이하게 되였다. 리동무가 무슨 일인가고 묻자 분조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붕의 기와가 못쓰게 되였더구만. 래일은 휴식일인데 지붕수리를 하라구.》

사실 그날 아침 리동무의 집결을 지나던 분조장은 그의 집지붕에 눈길이 멎었다. 금이 간 기와가 있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여 분조장은 자기 집에 있던 기와와 집보수에 필요되는 자재를 가지고 그의 집을 찾아갔던것이다.

남새제1작업반에도 분조의 맏누이로 불리우는 분조장이 있다. 그가 바로 3분조장이다.

며칠전 분조장은 한 농장원이 어린아이생일을 놓고 마음을 쓰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물론 그에게 시간을 주면 해결될수 있는 일이였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생일날 저녁 뜻밖에 어린아이에게 줄 옷을 마련해가지고 집을 찾아온 분조장을 맞이한 그 농장원은 뜨거운것이 치밀어오르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이 농장의 농사일이 잘되는 비결은 이처럼 분조장들이 분조의 맏형, 맏누이가 되여 분조원들을 친혈육처럼 도와주기때문이다.

본사기자 김창길

분조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시한 문제

금야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금야군의 농장들에서 올해농사차비를 성과적으로 끝낸 기세로 당면한 봄철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 성과의 비결은 군일군들이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분조의 역할을 강화하는데서 찾고 이 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든데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분조의 역할을 높여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분조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중시하고 힘을 넣고있는 군일군들의 경험을 놓고보면 주목되는 문제가 있다.

우선 농사대책안을 분조들의 특성에 맞게 잘 세우도록 한것이다.

지난 시기 군에서는 농사대책안을 농장을 기본으로 세웠다. 그러다보니 농사대책안에는 농장들의 알곡계획이나 품종배치, 비배관리일정계획 등과 같은 내용들만 반영되여있었다.

이것은 포전들의 지력상태와 해비침률 등 농사조건이 서로 다른 분조들의 구체적실정에 맞지 않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을 받아안은 책임일군들은 농사대책안을 분조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시 세우도록 하였다.

책임일군들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농장들에서 농사대책안을 작성하는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모든 분조장들이 자체의 실정과 결부하여 꼼꼼히 따져보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처음 농사대책안을 세워보는 분조장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힘에 부치였다. 그럴 때마다 일군들이 분조들에 내려가 분조장들의 사업을 도와주면서 실정에 맞게 잘 세우도록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분조들에서는 토양조건에 맞는 품종선택과 모내기적기보장, 비료시비량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농사대책안을 세울수 있게 되였다.

이렇게 하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농사대책안이 세부화되니 분조원들이 과학적리치에 맞게 시기별영농작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진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농사대책안을 세우는 과정에 분조장들의 기술실무수준이 현저히 높아졌다.

군책임일군들은 농사대책안을 세운데만 그친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앞장에 서서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었다. 일군들은 농장의 말단단위인 분조들에 내려가 농장원들의 농사대책안에 대한 인식정형도 알아보고 깨우쳐주면서 토지관리와 영농공정별작업과제를 명백히 주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총화를 제때에 실속있게 하여 농장원들 모두가 주인다운 자각과 높은 열의를 가지고 책임적으로 일해나가도록 하였다. 당정책을 해설해주고 과학농사방법들을 하나하나 배워주니 농장원들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불같은 결의를 안고 농사일을 주인답게 해나갔다.

분조장들을 현대농업과학기술지식의 소유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한것도 좋은 점이다. 지난 시기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에 대한 기술전습은 군에서 진행하군 하였는데 참가성원들 대부분이 작업반장들이나 작업반기술원들이 아니면 기껏해서 기능공들이였다.

일군들은 이런 판례를 깨고 기술전습도 분조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흙보산비료와 생물활성퇴비생산방법, 앞선 모기르기방법, 겹재배에 의한 두벌, 세벌농사방법과 관련한 기술전습을 군적으로 진행한 이후에도 농장, 작업반별로 다시 조직하였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분조장들이 기술전습에 직접 참가하니 실효가 더욱 컸다. 분조장들은 농사일에서 모르는것, 막히는것이 없어야 제구실을 할수 있다고 하면서 현대농업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하루일을 마친 저녁이면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에서 그리고 쉴참에는 포전머리에서 기술전습이 자주 진행되군 하였는데 이것은 분조장들을 새 세기의 진짜배기실농군으로 되게 하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였다.

일군들은 이런 기술전습을 한두번 조직하는것으로 그치지 않고 보여주기사업을 통하여 더욱 공고히 하였다.

보여주기사업도 앞선 분조와 뒤떨어진 분조를 정해놓고 따로따로 진행하였다. 이렇게 하니 분조장들이 앞선 단위의 경험은 배우고 뒤떨어진 단위를 놓고 교훈을 찾아나갔다.

이런 사업은 실효가 컸다. 이 사업은 단순히 분조장들의 실무수준만을 높여준것이 아니라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집단주의위력을 발휘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던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군일군들이 분조의 역할을 중시하고 분조원들이 주인구실을 다해나가게 하고있는것은 본받을만 하다.

본사기자 정성일

기행

하늘아래 첫 동네 백두산기슭을 따라 수백리

모란봉악단의 량강도순회공연길을 함께 달리며

모란봉악단이 평양에서의 공연을 끝마치는 길로 량강도순회공연을 떠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서둘러 북행길에 올랐다. 평양에서 이미 대파문을 일으킨 모란봉악단이 백두산기슭의 량강땅에서는 또 어떤 충격의 메아리를 울리게 되겠는지 떠날 때부터 마음이 설레였다. 살같이 달리는 승용차보다 마음이 먼저 달리는 량강도취재길이였다.

환희와 격동의 8일간

평양에서 백두산기슭을 향해 먼길을 달려 우리가 백두산아래 첫 동네인 삼지연군에 도착하였을 때 이곳에서는 모란봉악단을 맞을 준비로 명절마냥 흥성이고있었다.

우리는 먼저 삼지연못가에 항일의 전설적영웅의 모습으로 거연히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부터 찾았다.

4월은 봄이였지만 삼지연의 하늘에서는 빨찌산이야기를 속삭여주는듯 흰눈이 하염없이 내리고있었다. 그 사연많은 흰눈을 맞으며 삼지연대기념비너머로 아득히 펼쳐진 백두의 천리수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명곡 《눈이 내린다》의 선률이 뜨겁게 메아리쳐 울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내가 본 백두산은 영웅의 산이였고 내가 백두산에서 본 사람들은 영웅적인 투사들이였습니다.》

바라보면 항일전의 나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이곳에 들리시여 조국해방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모습이 백두밀림과 더불어 어려오고 삼지연의 맑은 물을 수령님께 정히 떠올리시며 충정의 맹세를 더욱 굳히시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체취가 가슴에 와닿는 력사의 땅,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로 무어진 첫 혁명전적지답사단을 이끄시고 이곳을 찾으시여 못가에 깃든 뜻깊은 사연을 들려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삼지연!

바로 이 력사의 땅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가 도착하기 하루전에 찾으시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을 만나주시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니 그 위대한 화폭에 실려오는 거대한 무게를 우리 어떻게 한가슴에 다 안아볼수 있으랴. 조국진군에로 항일혁명선렬들을 부르던 진격의 나팔수를 형상한 삼지연대기념비의 조각상이 의미심장하게 안겨왔다. 최후승리에로 부르는 모란봉악단 량강도순회공연의 첫 노래포성이 다름아닌 이곳 삼지연땅에서 울리기때문이였다.

—조국진군에서 조국해방으로, 사회주의수호전에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에로!

삼지연이 우리에게 새겨주는 시대와 력사의 울림은 이렇듯 고무추동하였다.

우리는 다음공연장소인 력사의 고장 대홍단군을 향해 떠났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진군의 길에서 유명한 일행천리전술을 쓰신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취재용승용차는 기세좋게 달리였다. 속력을 내여 달리는 취재용승용차의 차창너머로 빽빽이 들어찬 키높은 이깔나무숲이 유정하게 안겨왔다. 대낮에도 길을 잃는다는 천고의 밀림을 헤치며 조국의 해방을 위해 한몸바쳐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에 대한 추억으로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무심히 볼수 없는 백두산기슭의 이깔나무숲은 피어린 항일전의 나날에로 우리를 숭엄히 이끌어갔다.

얼마쯤 가다가 동행하던 한 일군이 차가 지금 위대한 장군님께서 눈보라치는 10리길을 걸으셨던 로정을 달리고있다고 알려주었다. 우리가 누리는 값높은 행복도, 조국이 맞이한 위대한 번영의 새시대도,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총포성없는 전쟁의 승리도 이 백두의 눈보라길과 이어져있다는 생각에 우리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뜨거워났다.

어느덧 우리의 눈가에 대홍단군의 정경이 비껴들었다.

백두화산이 분출하여 백두용암대지가 생겨난지도 수수천년, 오랜 세월 불모의 땅으로 버림받던 여기에 행복의 새 터전을 다져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백두삼천리벌에 새겨진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개척의 력사를 빛내이시기 위하여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수많은 제대군인들을 보내주신데 이어 대홍단군을 찾고 또 찾으시며 행복의 웃음소리 차넘치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전변시켜주시지 않았던가.

우리가 추억을 더듬는 동안 승용차는 어느새 대홍단군당위원회앞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일군들을 만날수가 없었다. 물어보니 모두가 모란봉악단을 맞이하기 위하여 대홍단군문화회관을 비롯한 여러 장소들에 나가있다는것이였다.

그날밤 우리는 가슴뜨거운 현실을 목격하게 되였다. 다음날 공연취재와 관련하여 급히 해당 일군을 만나러 회관으로 가던 우리는 도로에서 숱한 사람들이 눈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되였다.

깊은 밤에 무슨 일인가고 묻는 우리에게 한 나이지숙한 녀인이 이제 모란봉악단이 공연을 하러 오겠는데 귀한 손님들을 이런 눈길로 맞아서야 주인들체면이 서겠는가고 싱긋이 웃으며 말하는것이였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사람도 산천도 몰라보게 달라진 정이 가는 대홍단이였다. 그들은 이렇게 밤하늘의 별무리를 머리우에 이고 모란봉악단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온종일 내린 수십리에 달하는 도로구간과 읍지구의 그 많은 눈을 다 쳐냈다.

대홍단군 인민들의 이런 성의속에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군문화회관으로 모란봉악단 예술인들이 들어섰다.

아름답고 황홀한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대홍단군 사람들의 가슴가슴을 격정의 도가니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대홍단군 인민들이 사랑하는 노래 《대홍단은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와 《대홍단 삼천리》가 무대에 오르고 배경에 대홍단을 찾으시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려갈 방도를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환하신 영상이 정중히 모셔지자 그들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관람자들은 기계화의 대군단을 이끌고 대홍단삼천리벌을 가꾸며 행복넘친 생활을 하는 형제들과 친척들, 앞집, 옆집의 낯익은 사람들이 배경화면에 비쳐질 때에는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운 웃음을 짓군 하였다.

한가정이 나란히 앉아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본 홍단이와 그의 부모들의 기쁨과 행복은 남다른것이였다. 태여나기 전부터 위대한 장군님의 축복을 받아안은 홍단이가 이제는 14살나는 학생으로 자랐다.

정녕 대홍단은 사랑도 삼천리, 노래도 삼천리, 행복도 삼천리였다.

공연을 본 백암군 인민들의 격정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혜산시로 기행길을 이어갔다.

여러 군들을 순회하고있는 모란봉악단을 애타게 기다려온 혜산시 인민들의 공연관람열기는 더욱 고조를 이루고있었다.

끝나지 않은 공연

모란봉악단의 공연에 대한 량강도 인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대단했지만 공연을 보고난 그들의 반향 또한 실로 강렬한것이였다.

삼지연군 인민들의 격정이 류달리 컸다. 때없이 흰눈이 날리는 이 밀림속의 도시에서 항일유격대군복을 입고 공연무대에 등장한 모란봉악단 예술인들의 모습은 이곳 인민들에게 세찬 충격과 흥분을 안겨주었다.

공연을 관람한 사람들은 력사적순간의 재현을 보는것 같다고, 수십년전 조국해방의 성전에로 전민을 궐기시키던 항일유격대의 연예공연을 보는것 같다고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들속에는 삼지연군 읍에서 살고있는 전쟁로병 최영화할머니도 있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교환수로 복무하였다는 그는 전화의 포연이 슴배인듯 한 군복에 훈장과 메달들을 한가득 정히 달고 공연을 관람하였다. 한생에 이런 아침부터 량강도예술극장 앞마당에는 공연에 대한 관심을 안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이였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혜산시의 관람자들속에서도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격정으로 설레이는 혜산시 인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생각되는바가 컸다.

평양에서부터 혜산까지 쉴새없이 긴장하게 이어진 일정이였지만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전투적인 공연활동을 벌려 인민들에게 이렇듯 큰 기쁨과 흥분을 안겨주고있는 모란봉악단 예술인들의 수고에 머리가 숙어졌다.

우리 당이 품들여 키운 새 세대 혁명적예술인들의 헌신적인 투쟁기풍, 참신한 창조기풍은 우리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당선전일군들은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자!》**라는 구호의 깊은 뜻을 심장으로 절감하게 하여주었다. 백두산기슭의 유서깊은 고장들을 혁명열, 투쟁열로 들끓게 하는 모란봉악단공연은 마치 항일유격대의 연예공연을 방불케 했다.

량강도 인민들이 모란봉악단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것은 4월 10일 공연이 끝난 후 공연종목표를 통하여 그날이 가수인 라유미동무의 생일이라는것을 안 사람들이 저저마다 그를 찾아가 축하해주자고 떠들썩 이야기판을 벌리던 광경만 보고서도 잘 알수 있었다.

사람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활화산처럼 폭발시켜준 모란봉악단의 8일간의 량강도순회공연은 이렇게 성과적으로 끝났다.

희한한 공연을 처음 보았다고 하면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공연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수령들을 모시고 혁명해왔는가, 우리가 오늘 또다시 어떤 위대한분을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습니다. 이젠 제 나이가 팔순을 지났지만 남은 여생을 조국을 위하여 깡그리 바치겠습니다.》

로병의 눈빛과 감동으로 떨리는 목소리에서 우리는 모란봉악단이 인민들에게 안겨준 감흥을 충분히 느낄수 있었다. 군인민위원회의 일군도, 삼지연혁명사적관의 처녀강사도 그리고 포태농장의 농업근로자도 그 심정은 다를바 없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자욱이 새겨진 영광의 땅에서 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를 제일먼저 높이 울려갈 철석의 의지가 이곳 사람들의 한결같은 열망으로 분출하고있었다.

위대한 력사의 재현을 보는것 같다고 하던 누군가의 말이 다시금 의미심장하게 되새겨졌다.

보는 사람 누구에게나 삶과 투쟁의 진리를 안겨주고 승리에 대한 신심과 샘솟는 용기를 안겨주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이야말로 전장으로 떠나면서도 그리고 전투에서 돌아와서도 인민들앞에서 펼치군 하던 항일투사들의 노래춤바다를 련상케 하는것이였다. 투사들이 들었던 하모니카를 비롯한 소박한 악기들과 어설픈 림시가설무대는 현대적인 악기와 무대로 바뀌고 유격대를 맞이하여 마을의 귀틀집들에서 타오르던 광솔불은 그림처럼 멋들어진 살림집들의 전기불로 바뀌였지만 백두의 혁명정신은 세기를 이어 변함없이 계승되고있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였다.

대홍단군에서도 우리는 모란봉악단이 일으킨 격정의 물결에 흠뻑 몸을 적실수 있었다.

매일과 같이 장내를 진감하는 관람자들의 환호를 심장에 새기며 더욱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현지지도자욱이 어려있는 대홍단군 홍암농장으로 향하였다.

대홍단군 읍에서 차를 타고 20분가량 달리니 방풍림에 겹겹이 둘러막혀있는 밭들을 끼고 아담하게 자리잡은 홍암농장마을이 눈앞에 안겨왔다.

농장관리위원회가까이에 있는 도로옆에서 제일먼저 눈에 안겨온것은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 투쟁기풍으로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이라고 쓴 속보판이였다. 공연을 관람한 이곳 사람들의 열의와 위훈의 모습이 뚜렷이 안겨오는 그 글발들에도 력력히 비껴있었다.

관리위원회에서 우리는 15년전 당의 부름을 받들고 이곳으로 달려나온 제대군인들과 그 안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였다. 지금 진행되고있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맨 앞장에서 받들어온 제대군인들과 안해들의 심정이 남다를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들모두가 한결같이 열정에 넘쳐 토로하였다.

홍암농장 제4작업반 반장 박룡철동무는 모란봉악단과 같은 훌륭한 예술단체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 머나먼 길을 달려온다는것이 다른 나라같으면 상상이나 할수 있겠는가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에 감자증산성과로 꼭 보답하겠다고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최분희동무의 이야기도 감동적이였다. 그는 15년전 개성애국피복공장에서 이곳으로 자원진출하여온 처녀들중의 한사람이였다. 그때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개성애국피복공장의 처녀들이 올린 편지를 받아보시고 다음과 같은 뜻깊은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였다.

《대홍단은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1999.2.3.

김정일》

어버이장군님의 친필서한을 우러르며 언제나 힘을 가다듬군 하였는데 오늘 모란봉악단의 공연무대에서 그 글발과 함께 대홍단의 노래를 들으니 결심이 새로와진다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된 대홍단을 더욱 훌륭한 사회주의대지로 가꾸어가겠다고 하는 그의 진정넘친 이야기는 농장사람들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기도 하였다.

그들의 결의를 실증해주듯 뜨락또르들의 기세찬 동음이 들려왔다.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함께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제4작업반 포전에서 보리씨뿌리기를 하고있는 농기계들의 작업모습을 볼수 있었다. 첫눈에 벌써 주인들의 알뜰한 일솜씨와 정성이 안겨오는 농기계들은 어버이장군님께서 대홍단에 보내주신 기계들이였다.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형성되여 돼지물거름으로 비옥해진 농장포전은 보기만 해도 흐뭇한 가을풍경을 련상케 하였다.

옮기는 걸음걸음마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자욱이 가슴뜨겁게 어려오는 이 영광의 대지가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또다시 받아안았으니 올해 가을엔 풍년든 농장벌에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퍼지리라는 확신을 안고 우리는 농장을 떠나 대홍단감자가공공장으로 향하였다.

그 공장 역시 홍암농장과 마찬가지로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일터였다. 공장은 대홍단군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마음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를 보여주는 거대한 연혁소개실과도 같았다.

정문앞에 있는 1호감자접수장으로부터 농마직장, 분탕직장을 비롯한 거의 모든 생산현장들에 어버이장군님께서 다녀가신 날자와 현지지도차수를 보여주는 현판들이 나붙어있었다.

또한 상표기와 술주입기, 알엿성형기와 1, 2호랭동기를 비롯한 생산직장들의 거의 모든 기대들이 다 어버이장군님께서 보아주시고 그 성능과 생산능력, 리용실태, 합리적인 개조방법까지 가르쳐주신 설비들이였다.

크고작은 나라일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수년전에 공장을 찾으시여 보아주시였던 기대들의 개조정형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현지지도사적내용을 들으며 절세위인의 무한한 창조의 세계, 인민사랑의 세계앞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에게 지배인 박국필동무는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보면서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세계적인것을 돌파하며 끝없이 앞으로 내달리도록 걸음걸음 일깨워주시던 어버이장군님의 음성을 또다시 듣는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구나, 우리 공장은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공연이였습니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황홀한 예술의 세계만을 펼친것이 아니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열화와 같은 충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동시에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창조의 높이와 투쟁의 본보기를 제시하는 위력한 사상사업, 정치사업의 일대 공세전이기도 하였다. 시대를 뒤흔드는 예술의 힘, 모란봉악단 음악의 생활력은 바로 이렇듯 사람들의 심리정서적변화로부터 시작된것이였다.

모란봉악단의 이번 량강도순회공연은 혜산시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첫날공연이 끝난 후 우리가 제일먼저 만난 관람자들은 혜산중등학원 학생들이였다. 아직은 예술의 세계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론하기 힘든 나이였지만 그들의 대답은 솔직하고 씩씩해서 좋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과 배려로 멋있는 공연을 보았습니다. 어서 커서 인민군대가 되여 원수님의 은덕에 꼭 보답하겠습니다.》라고 함께 온 모든 학생들의 심정까지 합쳐 말하는 김철학생의 대답에서 우리는 량강도의 새 세대들의 목소리를 대견하게 들을수 있었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결코 무대우에서 꽃보라와 박수갈채속에 끝난것이 아니였다.

우리 혁명의 발원지, 항일전의 나날 전민항쟁의 보루였던 력사의 땅에 항일유격대의 나팔소리를 다시금 우렁차게 울려준 모란봉악단의 순회공연은 량강도 인민들의 생각과 눈빛, 걸음새까지도 달라지게 하였다.

백두산이 자리잡고있는 성스러운 고장에 모란봉악단공연무대를 펼치도록 하여준 당의 의도를 이곳 인민들은 심장으로 절감하고있으며 인민의 모든 꿈을 이루어주려는 어머니당의 구상을 실천으로 받들기 위하여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열풍으로 하여 환희와 맹세의 불도가니로 화한 량강땅을 떠나는 우리에게는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높이 울리게 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금시라도 귀전에 들려오는듯싶었다.

본사기자 강진형
본사기자 김명훈
본사기자 리 건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영국레이버당출신 국회 상원 의원일행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2일 네일 포비스 데이비드슨 영국레이버당출신 국회 상원 의원과 일행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손님들은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상원의원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제19차 전국청소년들의 충성의 축전 페막

제19차 전국청소년들의 충성의 축전이 페막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과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는데 이바지한 이번 축전에서는 조선청년운동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빛나게 완성해갈 온 나라 청소년학생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였다.

페막식이 22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있었다.

정치, 경제, 예술, 체육축전으로 나뉘여 진행된 축전에서는 평양시가 종합 1등을, 함경남도, 평안남도가 각각 종합 2등과 3등을 하였다.

축전종합결과가 발표된 다음 우수한 단체들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표창장과 우승기 등이 수여되였다.

페막사를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청년동맹일군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축전에 적극 참가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업적, 당의 로선과 정책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자신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분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였으며 온 나라에 혁명적랑만과 희열이 차넘치게 하는데 이바지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축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청소년학생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힘있게 분출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모두가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한 당의 호소를 심장에 새기고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청년전위의 영예와 기개를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가》가 주악되는 속에 축전기발이 내리워졌다.

페막식에는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1차련맹전 결속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시작된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1차련맹전이 결속되였다.

선수들은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경기마다에서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을 벌려 평시에 련마한 높은 축구기술과 육체적능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김일성경기장에서 21일 봉화산팀과 관모봉팀간의 남자축구경기가 있었다.

경기 첫시작부터 량팀의 선수들은 공격속도를 부단히 높여 득점기회를 여러번 마련하였다.

전반전경기에서는 봉화산팀이 관모봉팀을 2:1로 이겼다.

후반전에 들어와 25분경 관모봉팀의 10번선수가 구석차기한 공을 12번선수가 머리받기로 통쾌한 득점을 하여 경기는 2:2로 비긴 가운데 끝났다.

1차련맹전결과 남자경기에서는 리명수, 4.25, 압록강, 소백수, 홰불팀이, 녀자경기에서는 4.25, 소백수, 만경봉, 리명수, 월미도팀이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다.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2차경기는 곧 진행된다.

로씨야에네르기 및 안전쎈터대표단 도착

안똔 흘로쁘꼬브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에네르기 및 안전쎈터대표단이 22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로씨야련방대사관 참사가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속에 태양의 력사 영원하리

태양절경축 중앙미술전시회장을 돌아보고

얼마전 우리는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진행된 태양절경축 중앙미술전시회장을 찾았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인민적풍모,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업적을 보여주는 조선화, 유화, 아크릴화, 선전화를 비롯한 40여점의 수령형상미술작품들을 포함하여 70여점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시다.》

전시회장의 중앙홀에 들어서는 순간 금시라도 달려가 안기고싶은 위대한 어버이의 모습,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백두산을 배경으로 진달래꽃속에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형상한 미술작품이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보면 볼수록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사무쳐와 우리의 눈시울은 저도모르게 젖어들었다.

2층홀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기어이 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실 굳은 결심을 다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과 그이를 민족의 태양으로 받들어모셔갈 불타는 신념이 어린 혁명가들의 모습을 형상한 아크릴화 《짓밟힌 조선에 동은 트리라》, 해방직후 우리 당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회의참가자들의 모습을 형상한 조선화 《10월의 환호》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당, 건군, 건국의 력사적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참관자들은 작품들을 보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였기에 존엄높은 우리 당도, 인민의 나라도, 강위력한 불패의 혁명무력도 있을수 있었다는것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며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있었다.

《여기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조국을 자주로 존엄떨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특출한 사상리론업적을 보여주는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여있습니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유화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혁명로선과 방침을 내놓으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등 수령형상미술작품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던 우리는 한폭의 그림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아크릴화 《주체조국의 아침》이였다. 조국과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주체사상탑이 바라보이는 옥류교에서 새날을 맞으시는 력사적인 순간을 형상한 작품이였다.

작품은 참관자들의 가슴마다에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조국은 주체의 나라로 빛을 뿌려왔으며 앞으로도 자주의 궤도를 따라 변함없이 힘차게 나갈것이라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더욱 굳게 새겨주었다.

전시회장에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적지 않았다.

선전화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 만세!》를 비롯한 작품들에는 천리혜안의 군사적예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풍모가 훌륭히 형상되여있었다.

조선화 《락동강할아버지》, 《남강마을의 녀성들》 등 여러 작품들은 가렬한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어 인민군대와 한전호에 서서 용감히 싸운 우리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워주신 백두산위인들의 사랑과 헌신의 자욱자욱을 사상예술적으로 형상한 작품들도 참관자들의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특히 온 가족을 혁명에 바친 장길부어머니의 생일 여든돐상을 마련해주시고 몸소 술도 부어주시며 생일을 축하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모신 아크릴화 《크나큰 은정》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와 동지애의 세계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끼였다.

전후 대의원선거의 날 선거장에 나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온 나라 인민의 충정의 마음을 소박하게 말씀올리는 태성할머니의 손을 잡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형상한 유화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렵니다》는 뗄래야 뗄수 없는 수령과 인민사이의 혈연적관계를 잘 형상한것으로 하여 모두의 마음속에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이 앞을 막아도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를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세게 해주었다.

조선화 《로동자들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수령님은덕에 지하궁전 생겼습니다》, 《수령님과 농민》, 유화 《소년단야영생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 등의 작품들도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훌륭히 형상한것으로 하여 깊은 감동을 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날에날마다 새롭게 변모되는 우리 조국의 모습과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맹세가 비껴있는 작품들앞에서 참관자들은 더욱 희망찰 조국의 미래를 그려보며 오래도록 발길을 떼지 못하였다.

세계인민들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적풍모를 형상한 작품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온 세상이 흠모하는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한없는 영광과 행복에 넘쳐있었다.

참으로 이번 전시회는 참관자들의 가슴마다에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속에 태양의 력사는 영원하리라는 진리를 더욱 깊이 새겨주었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생의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조 향 미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을 안고 석탄을 꽝꽝 생산하자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불씨가 되여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강동지구의 탄광들이 석탄증산투쟁으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올해의 총진군길에 떨쳐나선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박차며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일수록 필승의 신념과 비상한 각오를 더 굳게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올해의 석탄생산투쟁에서 승전포성을 높이 울려갈 신심과 용기를 굳게 가다듬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확보탄량과 채탄장수를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을 석탄증산의 기본방도의 하나로 정하고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이 발휘한 투쟁기풍과 일본새로 갱막장들에 들어가 탄부들을 생산돌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일터마다에서 울려퍼지는 경제선동의 우렁찬 북소리가 탄전의 벅찬 숨결을 더해주는 속에 10여개 중심공정대상들과 수십개소의 새 구역개발을 빠른 기간에 결속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졌다. 년초부터 소철레루와 동발나무, 압축공기배관을 비롯한 많은 량의 설비, 자재들이 전투장들에 련이어 투입되여 탄부들의 증산열의를 크게 북돋아주었다.

어느날 흑령탄광의 어느 한 굴진소대막장을 돌아보던 련합기업소 지배인 김표훈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압축공기만 충분히 보내주면 지금보다 굴진속도를 1.5배이상으로 높이겠다고 저마다 결의해나서던 소대원들의 모습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자.

지배인의 결심은 련합기업소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날 저녁 열린 일군들의 협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한 론의가 진행되였다.

물론 설비, 자재보장조건이 의연히 긴장한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일군들부터가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생눈길을 헤쳐나가는 척후병이 되고 화선의 기관차가 되여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낄 때 극복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 탄부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발동하여 기어이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아내자고 열렬히 호소하는 지배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협의회참가자들모두가 신들메를 더 바싹 조여맸다.

련합기업소참모부의 작전에 따라 일군들이 한단위씩 맡고 막장에 들어갔다. 일군들은 탄부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현재 가동하고있는 압축기들의 능력은 물론 굴진량과 막장조건에 따르는 압축공기소요량 등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자신들부터가 직접 착암기를 잡고 천공도 하면서 탄부들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는 과정에 일군들은 현재 탄광들에 있는 압축기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만 한다면 부족되는 압축공기문제를 적지 않게 해결할수 있다는 신심을 얻게 되였다.

이리하여 련합기업소아래 탄광들에서는 압축기들을 그 능력에 따라 재배치하거나 굴진막장들에 더 바싹 접근시키기 위한 이채로운 전투가 벌어지게 되였다. 결과 이전에 비해 련합기업소적인 굴진실적이 눈에 띄게 높아지게 되였으며 같은 설비와 자재를 가지고도 석탄생산을 크게 늘일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올해에 들어와 굴진대상들이 크게 늘어난것으로 하여 새로운 압축기들을 마련해야 할 과업이 나섰을 때였다.

이전처럼 압축기들을 새로 구입하는 방법에 매달린다면 새 구역들의 조업이 그만큼 늦어지게 되고 나아가서 올해의 석탄증산투쟁에서 더 거둘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였다. 방도는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때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혁신적인 안목과 진취적인 일본새를 가지고 달라붙었다. 공무생산기지의 기술자들과 탄광의 오랜 기능공들을 발동하여 고장난 압축기들을 살려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미는 한편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면서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기 위해 피타게 노력하였다. 탄광에서 수십리 떨어진 어느 한 공장에 두대의 압축기가 있다는것을 알게 된 일군들이 련관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한시바삐 그것을 굴진막장들에 넣어주기 위해 아글타글 뛰여다닌 사실 하나만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오늘날 련합기업소에서 기술자들의 창조적열의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속에 전차속도조종의 현대화, 채굴공정설계체계의 도입과 같은 수십건의 기술발전목표수행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고있는것도 이곳 일군들의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일본새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탄부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불씨가 되여 석탄증산의 포성을 더 높이 울리자!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군들 모두가 바로 이런 일념안고 갱막장들에 몸을 푹 잠그고 탄부들을 증산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생눈길을 헤치는 척후병, 화선의 기관차가 되여 탄부들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며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바로 이런 일군들이 있기에 련합기업소아래 탄광들에서는 지금 대고조진군의 기상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본사기자 류성국

마지막 3일간과 다음달생산준비

문천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이 잘되는 단위들을 보면 어느 단위나 할것없이 일군들의 책임성이 높고 실력이 있는 단위들입니다.》

우리가 취재를 위해 문천탄광 기사장 리성원동무의 사무실에 들어선것은 지난 3월말이였다.

방금전 어느 한 갱에서 나왔다는 기사장은 얼굴에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닦고있었다.

《월생산전투로 매우 바쁜 모양입니다.》

우리의 말에 기사장은 다른 말을 하였다.

월생산전투가 아니라 다음달생산준비로 더 바쁘다는것이다.

뜻밖의 대답이였다. 월말까지는 아직 닷새라는 기간이 있다. 그런데 다음달생산준비라니?

의아해하는 우리에게 기사장은 웃으며 래일이면 탄광적인 월 석탄생산계획이 완수된다고 이야기해주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자체에 있지 않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탄광에서는 지난 10년간 매월 석탄생산계획을 평균 3일간씩 앞당겨 수행해왔다고 한다. 그리고 남은 그 3일동안에 다음달생산준비를 실속있게 짜고들군 했다는것이다.

확실히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탄광의 일군들은 어떻게 되여 지난 10년동안 매월 3일간이라는 시간을 얻어낼수 있었는가.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한두번도 아니고 해마다 매월 탄광적인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낸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것은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기 위한 일군들의 작전이였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11년전까지만 하여도 탄광에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후과를 완전히 가시지 못하여 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내지 못하고있었다. 지배인 김진규동무를 비롯한 탄광의 책임일군들은 굴진계획수행이자 석탄생산계획수행이라는 립장에 확고히 서서 어떤 조건에서도 굴진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고 한다.

일군들은 탄광에 한명의 로력이 새로 배치되여도 굴진력량을 강화하는데 우선적으로 집중시켰다. 일부 일군들속에서 당면한 석탄생산을 두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울려나왔지만 탄광책임일군들의 립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발등의 불부터 끄는 식으로 사업을 전개하여서는 언제 가도 탄광을 생산정상화의 궤도에 올려세울수 없다. 굴진계획을 미달하면서 쌓아가는 석탄산을 어찌 떳떳이 마주할수 있겠는가. 그것은 량심의 가책이기 전에 나라앞에 짓는 씻을수 없는 죄로 된다.

탄광의 일군들은 굴진력량강화와 함께 굴진설비들을 새로 갖추어주기 위한데도 모를 박았다. 압축기들을 보수하여 리용하였고 매 굴진소대들에 대담하게 새 압축기들을 마련해주는 사업도 립체적으로 내밀었다.

일군들이 굴진을 위해 몇해동안 기울여온 노력은 응당한 결실을 안아왔다. 탄광적인 굴진계획이 일별, 월별, 분기별로 완수되니 막장마다에서는 석탄생산실적이 오르기 시작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10년전부터는 탄광앞에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궤도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였다.

여기서 일군들이 중시한것이 바로 월말의 3일간을 얻어내는것이였다. 충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갖추어진 조건에서 앙양된 대중의 정신력은 더욱 무섭게 폭발하였다. 이제는 갱들에서 월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것이 단순히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전통화되였다는 탄광의 어느 한 일군의 이야기도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기사장을 책임자로 하는 탄광의 기술집단이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려 압축기들의 성능을 훨씬 개선하고 공기식버럭적재기들을 적극 리용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어놓은것도 탄광적인 생산계획을 월마다 앞당겨 수행하도록 탄부들을 적극 떠밀어주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었다.

월 마지막 3일간과 다음달생산준비, 이것은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가.

일군들이 현행생산과 전망생산을 다같이 확고히 틀어쥐고 통이 크게 일판을 전개할 때 자기 단위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강화되고 일터를 생산정상화의 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울수 있다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충성

생산능력확장공사 적극 추진

제남탄광에서

제남탄광에서 석탄생산능력확장을 위한 3단계 벨트콘베아공사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탄광의 일군들은 벨트콘베아설치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는데 맞게 단계별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그에 따르는 설비, 자재보장과 로력조직을 보다 구체적으로 짜고들면서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나가고있다.

3단계 벨트콘베아공사를 위한 1계단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수백m구간에 벨트콘베아를 새로 놓아야 하는 1계단공사가 완공되면 탄광적인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5갱의 운반능력이 훨씬 높아져 석탄생산이 종전에 비해 1.5배이상으로 뛰여오르게 된다.

1계단공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있는 공무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미 마련되여있는 생산토대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체로 벨트콘베아설치에 필요한 각종 축가공과 부속품생산을 다그침으로써 공사를 일정계획대로 내미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설비조립을 맡은 로동자들은 공업시험소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해당한 설비, 자재들이 도착하는족족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드세찬 돌격전으로 벨트콘베아조립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벨트콘베아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는 속에 갱도영구화공사에서도 큰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탄광의 직맹돌격대원들은 일터마다에서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높이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찾아내면서 매일 높이 세운 목표를 성과적으로 돌파해나가고있다. 이들의 투쟁에 의하여 갱도영구화공사는 지금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벨트갱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집단적혁신창조의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면서 원동소기초타입을 전부 결속하였다.

덕천탄광기계공장의 로동계급도 현대적인 생산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설비들을 빠른 기간안에 생산보장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탄광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결사관철의 투쟁에 의하여 3단계 벨트콘베아공사를 위한 1계단공사가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탄광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3단계 벨트콘베아공사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갈 충정의 맹세안고 계속 힘찬 돌격전을 들이대고있다.

본사기자

나라의 대동력기지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인포탄광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매월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

맹산탄광에서

맹산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대혁신, 대비약의 불바람속에 석탄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며 석탄공업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올해 석탄생산목표를 지난해보다 1.6배로 높이 세운 탄광일군들은 탄부들속에 들어가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매달 석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탄광참모부에서는 막장조건에 맞게 교대별작업조직을 면밀하게 짜고들고 전진과 퇴각개소를 합리적으로 정하면서 작업굴진을 드세게 내밀어 연층보유길이를 최대로 늘이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동발나무, 막장소공구들을 제때에 충분히 보장해주는 등 굴진조건을 더욱 원만히 갖추어주고있다.

채탄소대에서는 교대작업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과학적인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날마다 석탄생산실적을 부쩍 올리고있다. 채탄공들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한편 교대작업이 끝나면 스스로 다음교대를 위하여 작업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다. 교대당 석탄생산량이 훨씬 늘어나는데 맞게 운반공들은 경제강국건설의 전초선을 맡아섰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한 t의 석탄이라도 더 많이 실어나르기 위해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년초부터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매월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방인철

경쟁운동의 실효성을 높여

조양탄광에서

얼마전 우리는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장엄한 투쟁의 해인 올해 석탄생산투쟁에서 련일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조양탄광을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적을 낳는 어머니는 대중의 정신력이며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기본열쇠는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것입니다.》

희열에 넘쳐 갱막장으로 향하는 탄부들의 밝은 얼굴, 탄차마다 석탄을 가득 싣고 기운차게 내달리는 전차들, 시간을 다투며 높아가는 석탄산…

석탄증산으로 들끓는 탄전의 전경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성과의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탄광의 한 일군은 사회주의경쟁운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의 나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언제인가 탄광의 일군들은 월초마다 일부 갱들의 석탄생산실적이 의연히 떨어진다는데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았다. 일부 갱초급일군들속에 전달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으니 다음전투준비를 위한 작업굴진이나 하면서 얼마간 숨이나 좀 돌리다보자는 낡은 일본새가 남아있었기때문이였다.

탄광의 일군들은 방도를 사회주의경쟁운동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는데서 찾았다.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불러일으켜 석탄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는데 이바지하도록 경쟁운동의 규모와 기간, 요강작성, 총화평가방법 등을 현실성있게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벌어졌다.

여기서 일군들이 주목을 돌린것은 경쟁운동을 벌리는 시기를 바로 정하는것이였다.

이곳 탄광에서 매달 2차에 걸쳐 중순과 하순에 진행되군 하는 채탄경기와 굴진경기가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였다.

생산이 한층 고조되는 시기인 중순에 이르러 갱, 중대, 소대들사이에 활발하게 벌어지는 생산경쟁은 탄부들의 승벽심을 더욱 불러일으켜 단위시간당 생산성을 보다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한편 월 석탄생산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서는 하순에 열리는 채탄, 굴진경기들은 그달 석탄생산을 빛나게 결속하며 다음달 생산준비를 철저히 갖추기 위한 투쟁에로 탄부들을 고무추동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으로 석탄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사업에서도 탄광의 일군들은 사회주의경쟁운동의 생활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나갔다.

해마다 열리는 기술자, 기능공협의회, 새 기술자료들에 대한 해설과 보급, 매 사람의 기술발전과제수행정형에 대한 정상적인 료해, 단계별에 따르는 구체적인 총화평가 등 탄광적인 기술발전사업은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운동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이곳 탄광에서는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자체의 힘으로 대형권양기를 원상복구하였으며 제어기의 개조와 정류자편의 제작 등 전차들의 가동률을 높이는데서 나서고있던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대중의 앙양된 정신력은 모든 기적의 원천이라는것을 지난 기간의 사업을 통하여 체득한 탄광의 일군들은 더욱 분발하여 뛰고 또 뛰고있다.

본사기자 명흥숙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 공연

함흥에서 진행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 공연이 함흥대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가극혁명의 나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혁명가극으로 완성시켜주시기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다.

몸소 창조현장에 여러차례 나오시여 수십곡의 노래를 명곡으로 완성시켜주시고 무용과 무대미술, 관현악편곡, 대사 등 형상요소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며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밑에 창작완성된 혁명가극은 작품의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거대한 견인력과 생활력을 발휘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을 투철한 혁명의식,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함경남도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완성시켜주신 40돐을 맞으며 불타는 창작적열정과 기백을 안고 짧은 기간에 가극을 훌륭히 형상하여 무대에 올렸다.

나라를 빼앗긴 인민의 비참한 생활과 주인공의 우여곡절과 시련에 찬 계급적각성과정을 진실한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주는 가극은 관람자들에게 계급투쟁의 심오한 진리를 깊이 새겨주고있다.

《꽃피는 이 봄날에》를 비롯하여 우리 인민이 사랑하는 가극의 명곡들과 세련된 연기형상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출연자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가극의 세계에 심취되게 하고있다.

공연을 관람한 함흥시의 일군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존엄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애국의 한마음을 다 바쳐갈 결의를 가다듬었다.

공연은 계속된다.

철도협조기구 제29차 총사장회의에 참가할 철도협조기구위원회대표단 도착

철도협조기구 제29차 총사장회의에 참가할 쇼즈다따데우슈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철도협조기구위원회 대표단이 22일 렬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또한 뿔스까철도대표단이 왔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절에 즈음하여

이란특명전권대사, 팔레스티나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태양절에 즈음하여 만쑤르 차보쉬 주조 이란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2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리룡남무역상, 조선이란친선협회 위원장인 정영수로동상, 김정숙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 리길성 외무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만쑤르 차보쉬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김일성주석각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조선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서 위대한 전변과 전환적국면이 열려진 태양의 날이라고 격찬하였다.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시였으며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조선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진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란은 나라의 자주권과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언제나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선대수령들의 숭고한 념원을 실현해나가시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는 조선의 진보와 번영을 안아올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다음으로 양형섭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이란의 벗들이 해마다 우리 인민과 함께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표시로 된다고 말하였다.

자주시대의 앞길을 빛나게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고계신다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이란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변함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려는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립장을 표명하였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군사적위협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투쟁하는 이란정부와 인민에게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낼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였으며 존경하는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각하와 하싼 루하니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였다.

* *

태양절에 즈음하여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싼 주조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가 22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상 태형철, 조선팔레스티나친선협회 위원장인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박근광, 김형준, 심국룡, 서호원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연회에서는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싼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감을 창조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야씨르 아라파트각하와 친분관계를 맺으시고 민족해방투쟁에서 혁명적의리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오늘 조선인민은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해나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팔레스티나인민은 언제나 김정은원수각하의 령도밑에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편에 서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에게 진보와 번영, 복리가 있을것과 휘황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모든 분야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하였다.

다음으로 최태복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팔레스티나의 벗들이 해마다 우리 인민과 함께 태양절을 경축하는것은 인류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흠모의 표시로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를 지니시고 독립과 자주,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여러 나라 인민들을 성심성의로 지원하시여 인류해방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굳건히 계승되였으며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찬란한 현실로 꽃펴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과 고귀한 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조선과 팔레스티나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과 단결을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라고 말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마흐무드 아빠스 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이 떠나갔다

리기석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이 22일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전송하였다.

제16차 김일성화축전 참가자들이 떠나갔다

제16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였던 양홍준 중국 훈춘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총경리가 22일 렬차로 평양을 떠나갔다.

이에 앞서 류신생 중국 심양조선경제무역투자자문유한공사 리사장과 일행, 왕동평 중국 단동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총경리와 일행, 리상군 중국화초협회 두견화분회 부회장과 일행, 최룡호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부총장과 일행, 바야르토크토흐 엔크흐바야르 몽골 김정일화협회 대표가 렬차와 비행기로 갔다.

【조선중앙통신】

동족을 헐뜯고 시비중상하는 악습을 버려야 한다

겨레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던 북남관계는 또다시 대결의 수렁속에 깊숙이 빠져들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의 출발점으로 되였던 비방중상중지합의마저 무참히 유린되고있는 속에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모략소동, 북침전쟁연습책동 등 외세와 야합한 남조선당국의 대결망동은 최절정에 달하고있다.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북남고위급접촉 등으로 개선의 기미를 보이던 북남관계는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북남합의만 잘 리행되였어도 사태는 달리되였을것이다. 그 좋은 합의가 여지없이 짓밟힌 책임은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에 있다.

문제는 괴뢰패당이 비방중상중지합의를 어긴것은 북이라고 고아대면서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들고있는 사실이다. 얼마전에도 남조선집권자는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라는데서 우리가 비방과 도발중지에 대한 합의를 깼다고 하면서 《내부불안》이니 뭐니 하고 우리 체제를 걸고드는 악담까지 늘어놓았다.

특하면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넘겨씌우기 잘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체질적악습을 모르는바 아니다. 하지만 괴뢰패당이 너무도 뻔한 사실을 놓고 시치미를 떼는데 대해서는 경악을 금할수 없다. 북남고위급접촉에서 채택된 비방중상중지합의에는 전혀 아랑곳없이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까지 마구 중상모독하고 시비질해온것이 다름아닌 박근혜이다. 그런데도 그가 도리여 제편에서 우리가 먼저 비방중상의 중지에 관한 합의를 어긴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는것은 뻔뻔함의 극치로서 파렴치한 사기군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 추태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울수 없듯이 정의와 진실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다.

괴뢰당국은 비방중상의 중지에 관한 북남고위급접촉합의를 유린하고 란폭하게 짓밟은 장본인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뢰조성》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기초》를 쌓아야 한다고 외워댔다. 지난 2월 14일에 있었던 북남고위급접촉때에도 남측 대표는 《신뢰조성이 〈대통령〉의 의지》라느니, 《비방중상을 하지 않을테니 지켜봐달라.》느니 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나 그것이 저들의 대결적본색을 가리우기 위한 한갖 연극에 불과했다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발표한 공동보도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괴뢰군부패거리들은 《대북심리전》은 비방중상과 《무관계》하고 북남고위급접촉에서도 론의되지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대북심리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통일부것들도 《북인권문제제기는 비방중상과 별개》라고 강짜를 부리면서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더욱 확대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허위와 모략, 날조로 일관되여있는 《대북심리전》이나 《인권》소동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으로서 모처럼 마련된 북남합의에 대한 공공연한 파기행위이다.

비방중상중지에 관한 북남합의를 파기하기 위한 괴뢰패당의 책동은 그야말로 다방면적으로 벌어졌다. 외교부 장관이라는자는 《북이 대화공세》를 펴고있지만 실제로는 《도발에 여념》이 없다는 악담을 늘어놓았으며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역겨운 망발을 줴쳐댔다.

괴뢰당국은 《체제의 특성》이니, 《언론의 자유》니 하는 당치않은 구실을 내대며 보수언론들과 인간쓰레기들을 반공화국모략보도와 삐라살포행위에로 적극 부추겼다.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의 맨 앞장에 다름아닌 남조선집권자가 서있는것이다.

지난 2월 25일 박근혜는 집권 1년이 되는것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도이췰란드의 《통일경험》이니 뭐니 하며 불순한 체제대결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그리고 삐라살포행위에 미쳐돌아가는 인간쓰레기들을 자기 집에까지 끌어들여 환대를 하며 요사를 떨었다.

남조선집권자의 이런 추태는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과 체제대결소동의 도수를 더욱 높이려는 흉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지어 그는 《북핵포기》에 대해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면서 북남관계의 《결정적장애는 북핵》이라느니,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하라느니 하는 호전적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얼마전에 있은 남조선집권자의 유럽행각은 우리에 대한 악의에 찬 비방중상으로 얼룩졌다. 그는 유럽행각기간 우리의 핵억제력을 세계에서 제일먼저 제거해야 할 《핵위협》으로 묘사하다 못해 그 무슨 《불가능》따위를 운운하며 우리의 병진로선마저 제멋대로 헐뜯었다. 나중에는 《경제난》이니 뭐니 하며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터무니없이 중상모독하였다. 그것이 얼마나 보기 민망스러웠으면 남조선언론들이 《대통령》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식으로 발언할 권리가 없다.》, 《자극발언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겠는가. 그런데도 괴뢰패당이 저들은 《비방중상을 한적이 없다.》고 강변했으니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누가 곧이듣겠는가.

정수리에 부은 물은 발뒤꿈치로 흐르기마련이다. 집권자부터가 이렇게 북남합의를 란폭하게 위반하고있으니 그아래것들도 저저마다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에 미쳐돌아가고있는것이다.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곬만 더욱 깊어지게 하는 비방중상은 북남사이의 무력충돌과 전쟁에로 이어지기마련이다. 괴뢰패당의 뼈속까지 물젖어있는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 대결의식이 끊임없는 비방중상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전쟁위험까지 고조시키고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은 북남합의를 무참히 짓밟으며 우리에 대한 악의에 찬 비방중상을 계속하고있는것이 대화와 평화에로 향한 정세흐름을 대결에로 돌려세우는 부정적후과를 낳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괴뢰패당은 비방중상중지에 관한 북남합의와 관련하여 우리를 걸고드는 도발적망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만일 괴뢰들이 계속 그 누구의 《합의위반》을 부르짖으며 대결소동에 매달린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파국적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자신이 지게 될것이다.

심 철 영

정세파국을 몰아오는 분별없는 망동

남조선집권세력이 그 무슨 《인권상황감시와 기록》을 위한 유엔《북인권사무소》를 남조선에 설치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립장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그들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 얼마나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유엔《북인권사무소》설치놀음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며 북남관계를 더욱 엄중한 사태에로 몰아가는 극도의 정치적도발이다.

괴뢰들이 유엔《북인권사무소》설치문제를 운운하며 그 무슨 《보편적가치》니 뭐니 하고 떠든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 괴뢰패당이 《북인권》이 어쩌니저쩌니 하고 계속 시비질을 하고있는것은 그들이 실지로 인권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현 괴뢰집권세력이 반인민적악정과 《유신》독재부활책동으로 온 남조선사회를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 인권유린의 란무장으로 만들고있는것을 놓고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괴뢰당국이 노리는것은 《인권》이니 뭐니 하며 체제대결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려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와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해치는것이다. 문제의 엄중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의식, 병적거부감에 물젖어있는 현 괴뢰집권세력에게 있어서 《인권》모략소동은 반공화국대결을 위한 기본수단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집권자가 그 무슨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서 그 누구의 《인권》문제해결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떠든 사실과 괴뢰보수패당이 남들이 하는데 《우리가 못하는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아대며 《국회》에서 《북인권법》이라는것을 기어이 통과시키려고 발광하고있는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제 소굴에서 이렇듯 대결소동에 열을 올리는 괴뢰들은 국제무대에서도 우리를 터무니없이 모해하는 《인권》광대극을 집요하게 벌리고있다. 얼마전에 있은 유엔인권리사회에서도 괴뢰패당은 《공동제안》이니 뭐니 하며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북인권결의안》의 조작에 적극 가담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그에 이어 유엔《북인권사무소》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일 흉계를 드러낸것은 《인권》문제를 코에 걸고 외세와 작당하여 반공화국고립압살야망을 실현하려는 남조선당국의 책동이 그야말로 발악적인 지경에 이르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유엔《북인권사무소》라는것을 남조선에 설치하여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널리 여론화하면서 반공화국적대의식을 극구 고취하고 동족을 반대하는 외세와의 《인권》모략공조를 일층 강화하자는것이 바로 괴뢰패당의 목적이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허위와 날조로 흐려놓으려는 《인권》모략소동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망상을 이루기 위한 매우 불순한 책동으로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체제대결을 격화시켜 종당에는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지금 북남관계는 시시각각으로 악화되고있다. 이것은 우리와 한사코 맞서보려고 피를 물고 날치는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의 필연적산물이다. 폭로된바와 같이 남조선호전광들은 미제와 야합하여 《독수리》, 《맥스 썬더》를 비롯한 각종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감행함으로써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를 조성하고있다. 한편 비방중상의 중지에 관한 북남합의마저 무참히 짓밟고 동족을 악의에 차서 걸고들며 반공화국핵소동에 기승을 부리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괴뢰당국이 유엔《북인권사무소》라는것을 남조선에 설치하려 하는것은 북남관계의 총체적파국과 북침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한자들이 아니고서는 상상할수 없는 분별없는 망동이 아닐수 없다. 도를 넘어 상상을 초월하는 단계에 들어선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또 절대로 변할수도 없는 괴뢰패당의 대결적흉심을 다시한번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우리는 공화국의 신성한 존엄과 체제를 털끝만치라도 감히 건드리는자들에 대해서는 추호의 자비도 모른다.

체제대결이 정 소원이라면 우리도 그에 대처하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 저들의 종국적멸망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행위라는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조 남 수

군국화를 부추기는 무모한 처사

미국이 저들의 손아래동맹자인 일본을 위험한 길로 떠밀고있다.

최근 미국무성 대변인이 일본정부가 《무기수출3원칙》을 폐기한데 대해 환영한다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한것이 그 단적실례이다. 그는 일본이 《무기수출3원칙》을 폐기함으로써 미국 등과의 방위산업협력기회가 확대되고 절차가 간소화될것이라느니, 일본은 물론 협력국 모두에게 리로울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지어 그는 다른 나라들이 일본이 《무기수출3원칙》을 폐기한데 대해 우려할 리유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까지 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군국화와 재침준비책동을 더욱 부채질하는 무모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무기수출3원칙》은 1967년 당시 일본집권자 사또가 내놓았다. 그러나 현 일본정부는 이번에 그것을 뒤집고 방위장비품들을 다른 나라들과 공동개발하거나 해외에로 이전해도 무방하다는 그 무슨 원칙이라는것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얼마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열에 들떠있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일찌기 언론들은 《무기수출3원칙》이 폐기되면 일본의 무기기술이 국제분쟁에 리용될수 있는 길이 열려 패전후 고수해온 국책의 전환점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바 있다.

얼마전 이 나라의 한 언론기관이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의하면 정부가 《무기수출3원칙》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는데 대해 반대립장을 표시한 응답자비률이 66.8%에 달하였다.

특히 국제사회는 《무기수출3원칙》 폐기움직임이 전범국이며 패전국인 일본이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을 다그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였다.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끝끝내 《무기수출3원칙》의 폐기를 결정한것은 규탄배격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유독 미당국만은 그것을 옹호하고있다.

미국의 VOA방송까지도 자국이 일본의 《무기수출3원칙》 폐기를 환영한것은 주변국들의 우려와는 대조적인 반응이라고 평하였다.

물론 패전후 일본군국주의재생과 부활을 음으로양으로 밀어준 미국이 손아래동맹자의 군사대국화책동에 박수를 보낸다고 별로 놀라울것이 없다.

하지만 세계의 한결같은 비난과 규탄대상이 되고있고 하나의 우환거리인 일본의 《무기수출3원칙》 폐기의 유리성을 선전하다 못해 국제사회가 우려할것이 없다고 하면서 미국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있는것은 매우 심상치 않다.

과연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유지강화하고 주변대국들을 견제하는데 일본을 돌격대로 내세워 전략적리익을 챙기자는것이다.

오늘 미호전세력들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하여서는 일본의 군사력이 필요하다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시아《안보》정책실현의 중추일뿐아니라 미국의 세계군사기지 및 시설망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것, 특히 대국들의 경제군사적힘이 강화되고있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세계전략목표실현의 승패는 미일동맹관계강화에 의해 크게 좌우될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군사력을 리용하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을 은근히 내비치고있다.

오늘 일본의 군사장비생산과 《자위대》의 무장장비수준은 세계군사렬강들과 어깨를 겨루고있다.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에 들떠있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최근년간 군비확장책동에 열을 올리면서 해마다 막대한 군사예산을 세우고있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군사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되는 미국은 일본과의 무기공동개발 등을 통하여 첨단무기기술을 장악하고 아시아에서 군사적패권을 쥐려 하고있다.

한편 력사적으로 큰 나라를 업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을 일삼아온 일본은 손우동맹자의 비호밑에 저들의 음흉한 목적을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사실상 《무기수출3원칙》은 이미전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이 되였다. 《무기수출3원칙》의 막뒤에서 일본은 례외규정들을 만들어내여 《자위대》함선들을 해외에 파견하고 미국과 미싸일방위체계기술을 공동개발하면서 로골적으로 《무기수출3원칙》을 위반하는 길로 나아갔다. 일본제무기부분품들이 미국의 전쟁장비에 리용되고 전쟁에서 사용되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페르샤만전쟁시 이라크를 타격한 미국의 《토마호크》, 《패트리오트》미싸일들에 일본군수산업회사들의 부분품들이 리용되였다. 오늘은 부분품이 아니라 군사장비를 통채로 팔아먹을수 있게 제한그물을 찢어놓았으니 일본이 어디로 내달릴지는 불보듯 뻔하다.

미국이 일본의 《무기수출3원칙》의 폐기를 환영하는것은 결국 복수주의를 부르짖는 군국주의괴물에게 재침날개를 달아주는것이나 같다. 미국은 군사대국화의 구실을 찾고있는 일본반동들이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도록 부채질하고있다. 미친듯이 내달리는 군국주의마차에 채찍을 가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겠는가.

일본반동들이 손우동맹자의 부추김밑에 군사대국화의 길로 더욱 광신적으로 질주하게 될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일본은 어느 나라와 땅크기관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일본의 첨단기술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며 앞으로 공동개발과 수출로 이어가기 위해 방위장비품전시회를 개최한다, 무기생산을 위한 합동실무그루빠회의를 연다 어쩐다 하고 부산을 피우고있다.

아시아에서 군사적패권을 쥐려는 일본반동들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하여 이 지역에서는 새로운 군비경쟁, 군사적충돌의 검은구름이 짙게 드리우고있다.

일본을 돌격대로 하여 아시아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하려는 미호전세력의 범죄적책동은 국제적인 규탄배격을 면치 못할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해외침략책동을 무모하게 부추기는 놀음을 그만두어야 한다.

리 현 도

로골적인 무력시위를 중지하라

남조선시민단체가 주장

남조선의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 11일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공중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이날부터 남조선 전지역 상공에서 감행되는 《맥스 썬더》합동군사연습은 《도발원점 정밀타격》, 상대측 종심에 침투한 특수부대에 대한 보급품투하 등의 훈련을 기본으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몇해전 이 군사연습이 처음으로 시작될 때 참가한 비행기수가 10여대에 불과하였던것이 해마다 규모가 늘어나 올해에는 100여대가 투입되는 력대 최대규모의 공중타격훈련으로 확대된것은 북에 대한 강도높은 무력시위, 군사적압박이라고 규탄하였다. 남조선과 미국이 최근 군사연습규모를 확대하고 그에 대한 보도전을 강화하는것은 의도적으로 북을 자극하고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것외에 다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대규모해병대상륙훈련에 련이어 력대 최대규모의 공중타격훈련이 감행되는것과 같은 적대적인 무력시위속에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리는 만무하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남조선과 미국이 로골적인 반공화국무력시위인 《맥스 썬더》합동군사연습을 즉시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북침을 노린 《맥스 썬더》공중전쟁연습의 중지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산림복구사업

중국 내몽골자치구에서 산림복구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자치구에서는 지난 5년동안에 500여만무의 파괴된 산림을 복구하였다.

소아마비예방사업

꾸바에서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의 기간에 제2단계 소아마비예방접종깜빠니야가 진행되게 된다. 이 기간에 지난 3월에 첫 접종을 받은 50만명이상의 어린이들에게 두번째 접종을 하게 된다. 16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우주개발노력

볼리비아에서 우주개발에 힘을 넣고있다. 16일 이 나라 우주국은 올해에 두번째 통신위성제작사업이 시작될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나라의 첫 통신위성 《뚜빠끄 까따리》가 중국의 서창위성발사쎈터에서 발사되였다.

여러 나라들 협조

사우디 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17일에 진행된 만협조리사회 외무상회의에서 성원국들의 리익과 안전, 안정을 수호하며 자주권을 존중할데 관한 성명이 채택되였다.

이에 앞서 16일 웰남과 로씨야는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협조를 강화할데 관한 합의를 이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단평

종이범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것처럼 우쭐렁거리면서 온갖 못된짓을 하며 돌아치는것이 바로 미군이다. 미당국자들은 미군이 해외에서 범죄적인 군사작전을 벌려 쥐꼬리만 한 《공적》을 세워도 《용감성》이 어떻소, 《자유수호의 책임감》이 어떻소 하며 입에 침이 마를 지경으로 올리추군 한다. 그런데 최근에 그토록 힘을 자랑하는 미군에 대해 잘 알수 있게 하는 기막힌 사건이 하나 생겼다. 로씨야공군전투기가 흑해에서 돌아치던 미해군원양구축함 《도날드 쿠크》호를 발견하고 접근비행하였던것이다.

당시 로씨야공군전투기는 아무런 무기도 장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해군원양구축함주변을 여러차례 돌며 감시만 하였다고 한다. 반대로 미해군함선은 전투기들도 공격할수 있는 무장장비들을 갖추고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비행에 후닥닥 놀란 《도날드 쿠크》호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로므니아항구를 향해 줄행랑을 놓았다.

가판은 사건당시 혼쭐이 난 미군해병 27명이 군사복무를 하지 않겠다고 무리로 제대신청서를 제출한것이다. 《용감성》이고 《책임감》이고 뭐고 목숨을 잃을수 있는 그런 위험한 군사복무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것이다. 다급해난 군부는 그들에 대한 집중적인 심리치료를 한다고 하며 복닥소동을 피우고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군이야말로 허세만 부리는 한갖 종이범에 불과하다는것이 다시한번 똑똑히 드러났다.

염전사상, 전쟁공포증이 꽉 들어찬 이런 천하비겁쟁이들을 믿고 세계제패를 꿈꾸는 미당국자들이야말로 정말 가련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다.

리 경 수

아브델아지즈 부떼플리까 알제리대통령으로 재선

알제리에서 아브델아지즈 부떼플리까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였다.

그는 17일에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다수의 지지표를 받았다 한다.

평화적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립장 표명

이란국회 국가안전 및 대외정책위원회 위원장이 16일 한 외교석상에서 평화적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자기 나라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이란의 핵활동은 명백히 평화적목적을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란정부는 핵에네르기를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자본주의사회의 암담한 현실

경제형편에 비관

일본인들속에서 나라의 경제형편에 대한 비관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17일 일본내각부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3월에 경제형편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를 나타내는 소비자신용지수가 2월에 비해 1점 떨어져 련속 4개월째의 감소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최고기록

이딸리아에서 2월에 국가채무가 그 전달에 비해 175억€ 더 늘어나 2조 1 000억€에 달하였다. 14일 이 나라 중앙은행이 이에 대해 전하면서 이로써 국가채무는 지금까지의 최고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실업자 증대

미국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나고있다.

17일 미로동성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12일까지의 지난 1주일동안에 전국적으로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30만 4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 2 000명 더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물가 인상

프랑스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 주민들의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10일 이 나라 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월에 전국적으로 옷과 신발가격만도 그 전달에 비해 10.2%나 뛰여올랐다. 또한 제작업부문에서 생산된 제품가격은 1.3% 인상되였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의 해안가

에볼라비루스 피해 계속 확대

기네에서 에볼라비루스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은 17일현재 전국적으로 202명이 이 비루스에 감염되였으며 수도에서만도 50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인권유린을 유흥으로 삼는 미국

세계의 수많은 력사이야기들가운데는 어느 한 폭군의 《청동황소》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폭군은 청동을 주조하여 속이 빈 황소조각을 만들어놓고는 사람을 고문하는데 리용했다. 조각을 불로 달구어 그안에 든 사람이 모진 고통속에 비명을 지를 때마다 거기서 쾌감을 찾았다고 한다.

인간의 리성과 건전한 사고방식으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잔인한짓을 흥미거리로 여기는 야만들이 오늘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있다.

바로 아메리카제국의 양키의 후손들이다.

최근 미중앙정보국이 테로혐의자를 상대로 감행한 잔혹한 고문행위들이 폭로되였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가 미상원 정보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한데 의하면 미중앙정보국이 지난 2002년 3월 어느 한 나라에 설치한 비밀감옥에서 한 테로혐의자를 고문하였는데 더 얻어낼 정보가 없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십차례에 걸쳐 물고문을 가한것을 비롯하여 잔인한 고문을 계속했다.

이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세계도처에 비밀감옥과 수용소들을 꾸려놓고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과 학대를 수많이 감행한 미국의 범죄적정체가 다시금 드러나게 되였다.

지난 기간 미국은 《반테로》의 미명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구금하고는 물고문과 구타, 성폭행 등 야만적인 인권유린만행들을 감행하여왔다.

관따나모미해군기지감옥만 보아도 그곳은 인권유린의 왕초, 악의 제국인 미국의 축소판이다. 여기서 극도의 인간증오사상으로 길들여지고 인간도살을 업으로, 쾌락으로 삼는 미군이 감행하는 고문만행들은 세상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미군은 수감자들을 차디찬 감방에 집어넣고 고통을 주는것도 모자라 옷을 벗겨 얼음이 둥둥 떠있는 물통에 처넣어 온몸이 꽁꽁 얼게 하는가 하면 귀구멍에 불을 붙인 담배대를 밀어넣고 고통을 주는 등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유린만행을 저지르고있다.

2011년 도이췰란드신문 《베를리네르 짜이퉁》에는 관따나모미해군기지감옥에 갇혀있다가 석방된 뛰르끼예계 도이췰란드공민이 자기가 4년이상 체험한 미군의 인체실험만행에 대해 폭로한 기사가 실린적이 있다. 그에 의하면 미군이 여러차례에 걸쳐 그의 몸에 강제로 약물을 주사하였으며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고 한다. 약물이 주입된 수감자들속에서는 호흡장애를 비롯한 이상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미국의 인권유린만행은 극도로 잔인하고 추악하며 변태적이다. 이미 2005년 5월에 미국시민자유동맹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관따나모미해군기지감옥에서 감행된 미군의 죄행들을 폭로하였다.

미군은 수감자들에 대한 야만적인 고문을 일삼다 못해 이슬람교도수감자들이 기도하려 할 때 그들의 주위를 돌면서 야유하는 춤을 추었다. 그뿐이 아니다.

이라크를 강점한 미군병사들은 감옥에 갇힌 이라크사람들을 발가벗긴채 인간피라미드를 쌓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추잡한 행위를 흉내내도록 강요하고는 그 무슨 희한한 구경거리가 생긴것처럼 좋아서 히히닥거리였다. 지어 미군병사들은 이라크녀성수감자들을 강간, 폭행하다 못해 살해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지난 2012년에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병사 4명이 3구의 아프가니스탄인포로시체에 둘러서서 오줌을 싸면서 야비한 발언을 하는 동영상이 인터네트를 통해 공개되여 반미기운을 폭발시킨 사건은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생생하다.

또한 이슬람교도들이 가장 신성한것으로 간주하고있는 코란경을 불태우거나 변기에 처넣는것과 같은 추악한짓을 서슴지 않고 감행하여 국제사회의 경악과 규탄을 불러일으킨것도 미국의 인권유린행위의 일단이다. 지어 미군녀병사들까지도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을 하나의 도락으로 여기였다.

한 미군녀병사는 발가벗긴 이라크남성의 목에 개처럼 끈을 매고 사진까지 찍었다.

미군의 녀자심문자들은 이슬람교도수감자들의 얼굴에 더러운것을 발라놓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순결과 미덕을 본성으로 하는 녀자들까지도 그런 추잡하고 포악한 인권유린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으니 미국의 범죄적정체를 가히 가늠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번에 미중앙정보국이 그 무슨 정보라는것을 얻어낼수 없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감자들을 상대로 잔인한 고문을 계속 가한 사실은 미국의 인권유린범죄가 어디서 출발하고있는것인가를 낱낱이 알수 있게 한다.

테로관련정보를 얻는데 고문이 효과적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의 범죄행위를 합리화, 정당화하는 미국에 있어서 인권유린은 유흥거리로 되고있다.

《인간은 인간에게 승냥이이다.》라는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변태적욕망, 말세기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미국이고 보면 일개 병사나 국가기구나 할것없이 인간에 대한 착취와 억압, 야만적인 취급과 살륙을 생존방식으로, 《락》으로 삼는것은 새삼스러운것이 아니다.

온갖 인권유린범죄의 발상지인 미국이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야만들, 피에 주린 승냥이들이 서식하는 악의 소굴이다.

인권유린의 왕초는 반드시 인류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철 혁

ㄱ-41063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